

東大新聞

금주일언

저 나쁜 행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탐욕으로 인하여 스스로 결박함이 마치 만족할 줄 모르는 코끼리 같으므로 자주 포대에 들어간다
법규경 · 상유평 4백 52절

1998년 (불기 2542년) 4월 13일 (월요일) 제 1246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 -10 / 발행인 송석규 / 편집인 겸 주간 정택섭 / 부주간 고장택 / 편집국장 박상관 / 편집장 최정식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02) 260-3491 ~ 2 FAX (02) 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61) 770-2057



지면안내

2면
“생일 축하합니다!”
오는 15일은 동대신문이 창간된지 48돌이 되는 날. 학내 여러 주체들이 축하의 글을 보내왔다.

6면 7면
대학언론의 위상이 흔들린다?
계속되는 대학언론 탄압 속에서 ‘대학언론도 언론’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앞으로 대학언론이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다.
또한 3만 독자들이 생각하는 동대신문,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8면 9면
학부제, 똑바로 세우자!
고등교육법이 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고 아직도 우기는 친구에게 꼭 보여주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본교의 대책과 학부제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5백명의 동대생에게 학부제에 대해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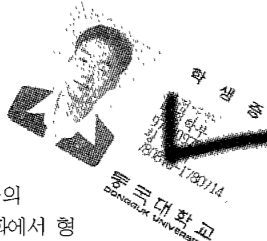
TEL:2603491-2/ (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 등 기탁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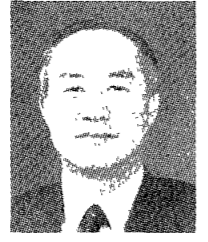
스나기

학번VS나이

△학번이 캠퍼다! 재수생이 밥인가! △'나이차별·학번차별', 나이차별 KO승. 나이많은 사람 우대하는 사회 (학교)풍토 조성하자. △경로효친 사상의 의미... △당연히 나이다. △학번이다. △같은나이 뒷학번이라면 반말 of course! △학번이 캠퍼다. -맛는말. △뛰어 넘을수 있는건 연애. △타지에선(객지) 10년 말된다. △학번 우선주의가 우리학교의 中心. △나이도 캠퍼다. △군대에서도 나이 많으면 대우해준 다. △군대는 군 번, 학교는 학번! △21C는 다양화. 철학과 기초학문의 발달은 토론문화에서 형성되므로 21C는 이런 군대식 순번제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학과가 존재하는 한은 무시할 수 없다. △나이가 먼저나, 학번이 먼저나 그것이 문제로다. △늦게 들어온게 죄지.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학번이 우선이다. △학번이 캠퍼다. 98화이팅. △너무하는군. 늦게 온것도 서러운데... △경로우대 △나이가 우선이다. 그러나 1학년 정도의 차이는 학번 and 나이는 썩셈이다. 고로 서로 존중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이 상관없이 교내안에서는 학번이 우선순위라 생각한다. 그 만큼 사정이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학교안에서만은 학번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나이가 우선이다. 밥이라도 한그릇 더 먹은 사람이 최고다. △승부를 가릴수 없는 영원한 수수께끼. △나이는 학번순이 아니잖아요. △학번따라 형님, 아우! 그거 너무 우습잖아요. △살다보면 별일이 다있어요. △극복하기 나름이다. △기분나쁘다. 내 나이는 너보다 많은데 어떻게 같아노니? △그냥 그저 그렇게 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조그만게 무슨 문제예요. △나이도 존중해야 되지만 대학은 아직도 학번 우선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학번이 98이런 새끼가 아닌가요?



기념사 '올바른 보도·사랑받는 신문' 동국의 역사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동국의 얼골로서 학문의 축적은 물론 동대사의 궤적으로, 또는 사상의 거울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동대신문의 창간 48주년을 자축하며 마치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온갖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임을 다해온 역대 편집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와 함께 노고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동대신문이 쌓아온 공적은 일일이 열거할 하지 않더라도 동국가족 여러분이 더 잘알고 있었습니디만 무엇보다 동국을 거쳐간 15만여 동문들과 2만여 재학생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필요한 자리에 있는 여론 창달자이자 새로운 역사의 창조자로서 오늘의 동국을 있게한 원동력이었음을 자부해도 좋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가 최근 몇 년사이에 교육개혁 2년 연속 우수대학의 영예와 종단·재단·학교 총장회등의 화합속에 3백50여원에 달하는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그 결과로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역사와 제3캠퍼스 건설을 눈앞에 둔 것 등은 동대신문을 비롯한 모든 구성체의 합심협력의 결실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대신문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본교의 위상을 제시하면서 학교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기능을 더욱 깊이 새김으로써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동대신문은 언제나 진실과 이성에 입각해 편향되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감시자로 올바른 보도를 통해 사랑받는 신문이 되고, 또한 동국의 영원한 역사의 보고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국가족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동국과 함께 동대신문을 아껴주시고 성원있으시길 바랍니다. 송석구 총장, 발행인

공정·정확·신속성 갖춰 대학문화창달 주력해야

동대신문사의 창간 48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 4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당히 맞서서 이겨왔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대신문사는 48년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하나의 큰 맥을 형성함으로써 동국발달과 대학문화 창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신문의 경쟁력은 공정성, 정확성, 신속성등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 대변하거나, 외부의 압력에 굴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언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기사화하여 독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48주년을 맞이하는 동대신문사는 앞으로도 계속 대학문화창달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4·19의거 때 대학신문이 학생들의 여론을 하나로 하여 사회발전의 주도적 입장으로 나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회발전에 대한 대학신문의 역할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적극 대응하고 모든 분야에서 항상 앞서가는, 일백년 이상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 동대신문으로 발돋움 하길 기원합니다. 황영수 총동창회장

'48년 연륜... 성숙의 미' 정론 다지는 겸손으로...

동대신문 48주년의 창간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완숙의 의미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는 높은 지평에만 안주하지 말고 신문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모일간신문에서는 고품으로 내내해진 언론의 기능을 바로 잡기 위해 빼어난 비평의 글들을 연일 특집으로 다루며 자신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정론으로 태어나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48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러한 연륜으로 동대신문이 대학신문으로서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면 판단력과 비판의식이 무더 어지듯이 신문도 지평이 높아지면 비판감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동대는 교육개혁, 구조조정, 병원 및 제 3 캠퍼스건립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큰 변화의 기로에 있습니다. 과연 동대신문이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그 문제들의 진실을 밝히고 학내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고 학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정한 황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겸허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명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바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때 창간 48주년 축하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익기 교수회장

마흔 여덟번 아침을 맞고 다시 새벽을 시작합니다

정론직필 반세기, 사회의 빛·희망지 되길

반세기 가까운 세월동안 정론직필의 신념으로 창간 48주년, 지평 1246호의 발간에 이른 동대신문의 역사에 진심으로 축하와 찬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역사, 암울했던 시절이 오히려 많았던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폭압을 견뎌내며 이 대학과 국가·사회에 빛이 되었던 희망지 동대신문! 그 폭압속에서도 반토막짜리 펜이기를 거부하고 오직 온전함을 위해 휘둘렀던 힘찬 글, 고뇌하던 선·후배들의 눈빛이 새삼 떠오릅니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동대신문의 사명과 해내야 할 역할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막중하고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속에서 학내 제 주체들의 열망과 소리를 담고 그 입과 눈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는 동대신문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장구한 역사와 전통의 이면에 때로는 그리고 한때는 편향과 왜곡에 대한 경계를 간파했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며 반세기를 맞이하고, 한세기를 향해 다시 출발하는 동대신문, 동국의 영원한 빛과 희망으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동대신문 창간 48주년을 동국대학교 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철욱 노동조합 위원장

학내 모든 주체의 민주언론으로 살아나야

다산 정약용 선생은 후학들에게 "학문은 천하의 공유물이다(學問者, 天下之公物也)"라는 말씀을 남기신 바 있다. 누구의 말이든 그 말이 이치에 맞다면 비록 미천하고 웅얼한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라도 할지라도 의당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물론 모든 세인들이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 할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동양의 참목소리를 가려달고자 지난 반세기 동안 웅변정진해온 동대신문에 든든한 자부심을 가진다. 더불어 동양의 진정한 '민주적' 정론지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목소리의 크기가든 상관없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신문, 그리고 학내 모든 주체들에게 사실 없는 언론을 제공해 주는 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모든 동국인에게 읽힐 수 있리라 믿는다. 이 점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은 아쉬움이 없지 않다. 새롭게 배움의 자세를 가다듬을 시기에 온 만큼 동대신문에게도 다산의 가르침이 예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창간 48돌을 맞는 동대신문에 1600여 대학원생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목직인 행보를 기대한다. 박정진 대학원 총학생회장

진보를 향하는 당당한 '동대신문' 함께하길

지난 동양의 역사는 일제시대부터 질곡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불의와 부정에 맞서 싸워 온 역사, 청년의 기개와 양심을 지켜 온 역사였습니다. 동대신문 역시 지난 반세기동안 이러한 동양의 역사와 함께 사회의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고 발전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참다운 대학언론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수사회의 관대언론, 기성언론이 내지 못하는 진실을 향한 목소리, 진보를 향한 목소리, 금기를 깨는 평등의 목소리 아닐까요?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이제는 너무나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학우들의 삶의 이야기, 삶의 지향을 반영하는 우리들의 자주적인 언론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는 것일테지요. 언제나 민족동국의 이름앞에 당당함으로 진실함으로 동대신문의 깃발을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성과를 가슴에 담고 미래동국, 통일조국의 동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길에 일단 이친의 진정한 대변자, 진실의 선도자로 우뚝 설 동대신문을 그리며 다시 한번 창간 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준서 30대 서울캠 총학생회장

건강한 비판, 치열한 노력에 갈채를 보내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온방골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동대신문사의 건강한 비판이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합니다. 흔히 '펜은 칼보다 강하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와 대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언론의 힘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칼보다 강한 펜이 올바르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봤을 때 중요성 또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온방골 곳곳을 1년 365일 비쁘게 뛰어 다는 동대신문사 기자분들을 볼때마다 사명감에 불타는 열의를, 기사에 대한 애착과 자신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우들이 기자분들의 고충과 수고에 대해 이해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정론직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항상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는 일반 온방골 학우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원고작성을 위해 수고하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창간 4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백재욱 15대 경주캠 총학생회장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재승아! 24기 가장된 것 무지 축하한다. -24 YL 고소영 △윤경아! 생일 축하해. -사학과장 & 지능 △96 경영학과 오단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4월 14일 -단비 FAN 클럽 대표 △영연아 생일 축하한다. - JAMES DEAN △정승아, 미영아, 생일축하해. -진짱- △Post 재희형 4월 8일 생일축하드립니다. △은진·진아의 첫초관을 축하한다. △드디어 앳구리를 채우게 된 생자대 새내기 최모양...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열심히 하시다.

△4.19 등반대회는 우리께. -몰리과 D.S. △꽃길은 4.19 등반대회에 많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4.17 네오에드 북한산 등반대회 있습니다. 전원 참석 바랍니다. -NEO 짱 수고하셨습니다. △화회실을 열심히 정리하는 진용이에게

가방 잃어버리고, 예쁜 정화는 집에서 쫓겨날 판이고, 허걱... 정말 술 마실 때 '절제'란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할 양. 허걱. - 집에 들어가기 싫어진 예쁜 정화

온방골 축하합니다

△명선씨, 17일 생일축하합니다. -K·K △마음소리 9일 원성선배, 10일 건후선배, 11일 선운선배 26일 지영이 언니 모두 생일 축하요. △드디어 은주가 C·C가 되었다나요! 3년 동안 못한 나를 제치고 1달 만에 M·T가서 해 베풀네, 축하해요. △편입생 여러분 편입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편입생이예요. 특히 지선전문대 졸업생 환영. △태형이의 운전 면허증 취득을 정말로 축하해요. -2002기 학생 △대·자·봉의 8기 이우섭 선배님의 생일(4월 9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11기 귀여운(?) 후배가. 12기 더 귀여운 후배 △4월 28일이 외로운 친구 미숙이의 생일이예요. 그날만큼은 그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문학 속녀(?)

△일문과 98화번 이건봉, 이선산 "동아 마라톤" 완주했습니다. -동기

열심히 하시다.

△공무원이 되려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아, 선배님들!! Go! Go! Go! -Niacin 수고하셨습니다.

알립니다.

△4월 26일 선후배 체육대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후우회 △14일이면 덕연이랑 유희랑 만났지 3백일, 나네 3백원 안 주면 두고 보재이~ △총학생회 출범식날 열실 분실하신분

(월성 2개, 곰돌이 열쇠고리) 연락주세요. 돌려드릴게요. -012·751·3554

그리고...

△선과 인간(7,8,9) 수업시간에 본 단발머리 카리스마를 기억해주세요. -K·K △극악과 선진이가 요즘 사랑에 빠졌어요. 영원히 그 마음 오랫동안 간직해서 사랑이 이뤄질지 기원해요. -친구들이 △동락군의 반쪽 찾기 작업이 올하는 성공하기를 ... -냉정 △사랑할수 있어 하늘에 감사한다. 슬프지만 행복한 너와 나의 만남이 영원하길. △4일 모임때 함께 보낸 친구들. 주명, 향희, 민수, 은영, 그들은 정말 잊지 못할 꺼다. 같이 마신 술잔찬, 같이 부른 노래, 같이 나는 얘기를. 너무 좋았구 행복했다. 너희들은 나한테 큰림이야. △4월 13일 언니, 남친친구 때문에 맘 아파? 그레드 슬퍼하지만, 모든게 잘될꺼야. 비운 후 하늘이 더욱 높고 맑아지는 것처럼. -사랑할줄 아는 애가

Table with 2 columns: Date (월, 화, 수, 목, 금, 토) and Event Name (대형만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Includes details like '하이리이스(1200) 소고기야채밥(1800)'.

Table with 2 columns: Date (월, 화, 수, 목, 금) and Event Name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Includes details like '콩나물국밥(2800) 삼겹살(3200)'.

수습행정관 교육 진행
즉석에서 20만원 기부

96년도 행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수습행정관 교육이 '한국교육개발원과 서울대에 이어 본교에서도 지난 8일 열렸다.

수습교육을 마치고 교육부에서 근무하게 될 12명의 행정관을 대상으로 본교의 입시제도, 연구활동 및 조직, 교육개혁 추진현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교내의 도서관, 교육매체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고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조정실의 이강현 과장은 "교육개혁 등의 실적을 감안하여 본교가 이번 교육의 대상학교로 지정됐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을 위해 본교가 진행중인 사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즉석에서 20만원 모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전문분야 사회봉사단원 모집
16일까지 장학과에서 접수

이웃사랑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자 참사람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전문분야별 '사회봉사단원'을 모집한다.

4월부터 연중 활동하게 되는 이번 사회봉사단원 신청은 교수,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16일까지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장학과(280-3050)에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회봉사는 △무의탁노인 돕기 △모자가정 돕기 △북극지선 돕기 △산사당 봉사회 △환경지킴이 봉사회 △한강사랑 봉사회 △고아원돕기 봉사회 △장애인돕기 봉사회 △긴급구조 봉사회(산악팀, 해양팀, 소방팀, 재난팀, 스포츠팀, 안전팀) 등의 분야가 있고 33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 1학년 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참사람봉사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되어 앞으로 연중 실시될 후원금 모금에 현재까지 교수 52명, 직원 1백21명이 후원금을 약정해 매월 90여만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참사람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이 후원금을 우선 독거노인과 모자가정을 위해 쓸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교직원들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학내주체 참여 논의의 장 마련

지난 8일 고등교육법 공청회 열려...내실있는 대화 아쉬움으로 남아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본교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 주최로 지난 8일 오후 2시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 3세미나실에서 '학부제 성과 및 새로운 고등교육법 시행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3백여명의 학생, 교수, 대학원생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조의연(영문학) 교수회 총무의 사회로 김익기 교수회장 인사말 △토론위원 소개 △양문홍(인문학부)교수의 주제 발제와 박부권(교육학)교수, 박상범(경주권 경영학)교수, 이영환(경제통상학부)교수, 오대혁(국문학

박사과정 2학기)대학원 부총학생회장, 구준서(전자공4) 총학생회장 등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익기 교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개혁은 학교발전과 장래를 생각해 볼 때 무척 중요한 문제이다"며 "학생, 대학원생,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이번 공청회의 의의를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형석(인문학부2)군은 "학부제 입장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양문홍교수는 발제문에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는 하나 과정에 있어 일부 몇사람의 독선적인 추진이 있었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시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짧은 토론시간으로 실질적인 고등교육법시행에 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청회에서 참석한 김형석(인문학부2)군은 "학부제 입장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성과 및 새로운 고등교육법시행에 관한 공청회

일시: 1998년 4월 8일(수) 오후 2시~4시
장소: 학술문화관 제2세미나실 주최: 동국대학교 교수회



지난 8일 개교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공청회 모습.

동국참사람 인증 2기 교육생 선발

능력과 인성 배양 목적으로 실시...이수시 인증서 수여

학생처 취업과(과장=김병수)는 취업특화교육인 '동국참사람 인증' 제2기 교육생 50명을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동국참사람 인증' 제는 졸업생의 전문능력과 인성을 배양하고자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교육내용은 인성교육·사회봉사활동·외국어교육·컴퓨터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기간은 1년이고 오는 9월 1일에 개강한다.

'동국참사람 인증'은 98학년도 3학년 재학생 및 5학기 등록자가 신청가능하며 평점평균 B이상, 학부장 또는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이 필요하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다음달 11일부터 21일까지, 면접은 23일에 실시되며, 합격자는 27일 취업과 게시판에 공고된다.

한편, 1년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동국참사람 인증서'가 수여돼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게 되는데 그 자격은 △공통성적=학과성적 B이상, 80%이상 출석자 △과목별기준=인성교육·종합

점수 80점 이상, 사회봉사활동·실적 40시간 이상, 외국어영역·TOEIC 8백점 이상·G-TELP 2급 이상·TOFLE 6백점이상(3개 중 1개 이상 취득), 컴퓨터 과정=컴퓨터교육원 시험 평점평균 8백점 이상·국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등이다.

이와 관련 취업과 김혁배 과장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이 교육을 실시한다"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당부했다.

고등초빙법회 개최 보성 컨스님 초청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내일(14일) 오후 4시 송광사 방장인 보성 컨스님을 초빙해 '고등초빙법회'를 개최한다.

'불자여,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주제로 실시될 이번 법회는 교직원, 학생, 일반불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정철 법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될 것이고 학문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법회의 의의를 밝혔다.

4·19 등반대회 열린다

오는 17일 북한산에서...접수는 학생과

4·19혁명 38주년을 맞이하여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는 '제29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오는 17일 북한산일대에서 개최한다.

17일 오전 9시 4·19기념탑을 시작으로 △대동문 △북한산장 △위문 △하루재 △도선사 등의 코스로 진행되는 이번 등산대회는 학(부)과, 동아리, 대학원, 동문의 4인1조팀과 50명 이상의 학생과 교

수 2인 이상 참가한 학과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푸짐한 시상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과의 한 관계자는 "많은 동국인이 참가해 선배들의 정신을 기리고 또한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참가접수는 오는 16일까지 학생과나 산악부로 하면된다.

'팀'제 진단 팀제 전환의 효율성 제고 도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 줄여야

본교는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팀제를 도입해 지난 3월 31일부터 기획과와 학적과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단순 명칭의 변화, 과도한 업무, 중간 관리층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팀제'는 전통적인 관료제하의 위계적 형태에서 벗어나 조직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지만, 단지 형태적 변화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부장, 과장, 계장, 직위 등으로 부서가 구성되었던 이전의 체계를 여러명의 팀원과 한명의 팀장으로 재구성, 관리계층을 줄이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전의 직급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다음으로는 나이나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능률위주로 경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 중간 관리층의 사기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데, 과장이나 계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일반 직원들과 같이 팀원으로 되면

적용하기가 힘들어 불만, 소외감 등을 느낄 수도 있다. 본교의 경우 선임팀원이라는 명칭으로 일반 팀원과 이를 구분하고 있지만 아직 구분의 명확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다.

인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와관련, 학적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개편에서 팀제 전환 후 본래의 업무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고, 개인의 업무 양만 늘어났다"며 "이러한 팀제로 하는 것인 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직은 시범운영 단계로서 팀장의 처우나 역할, 팀 내의 체계, 임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지금, 학교당국이 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교당국은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영길 기자

보리수

소속지족(小欲知足)

윤 청 광(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부처님은 '유교경(遺敎經)'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면 부유하고 즐거우며 편안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발 위에 누워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좁좁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르켜 '소속지족'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줄이자는 것을 재물이 보신 줄이고 만족할 줄 안다는 뜻이다.

사람의 욕심은 밑받침 항아리와 같아서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재물이 보신 부처님께서 그 무한욕심으로 빛어지는 인간의 고뇌를 덜어주고자 지족(知足)이라는 처방을 내려준 셈이었다.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장치가 엑셀레이터인데, 바로 이 엑셀레이터가 사람의 욕심이라면, 지족은 자동차에 부착돼있는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타고다니는 자동차에 무한 속력을 낼 수 있는 엑셀레이터만 있고, 그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일으킨 끔찍한 대형사고를 수없이 겪어왔다.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터져버린 자동차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처참한 사고를 일으키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가 일으켜온 끔찍한 대형사고를 그토록 많이 겪어오면서도 그것을 단순한 교통사고로만 보고 넘겨왔지, 삶의 교훈으로 삼지를 못했다. 부도를 맞은 중소기업체 사장이 회고는 어린것들과 함께 집단자살하고, 매일처럼 만명씩 넘는 실업자가 길거리로 내쫓기는 한심스런 세상,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세상도, 알고보면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가 일으킨 대형참사와 다를 것이 없다. 시골 면직원도 말아서는 안되었을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 터무니없게도 대통령자리까지 차지했던 저 무한대의 욕망, 남의 나라 빛을 얻어다 사는 주제에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화려하고 멋있게'를 외치며 흥청망청 달려간 사람들, 만족할 줄 모른 채 끝없는 욕망만을 쫓아간 결과가 결국 오늘날의 이 어이없는 세상을 만든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우리 모두 '소속지족'이라는 지혜로운 브레이크를 달아야 하지 않을까.

알림

동대신문 창간 48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호부터 보리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전해주(불교대 불교학부 교수) 박경준(불교대 불교학부 교수) 정성본(불교문화대 불교학부 교수) 윤청광(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중구내내 불우이웃돕기 후원 봉사자 명단 (기간: 98. 3. 16 ~ 3. 31)

- | | | | | | |
|-----|-----|-----|-----|-----|-----|
| 김경재 | 김보환 | 김순구 | 김용욱 | 김인중 | 김종호 |
| 김영희 | 김해중 | 리영자 | 민병복 | 박경문 | 박순성 |
| 박경순 | 박준상 | 박준영 | 박준원 | 백승우 | 서은길 |
| 손 승 | 송일호 | 신재호 | 안민수 | 안동식 | 연기영 |
| 오일배 | 오정수 | 유승훈 | 유지나 | 윤화영 | 이상철 |
| 이흥규 | 이정순 | 이종대 | 이종태 | 이진구 | 이혜은 |
| 임종욱 | 장영우 | 전일영 | 정병조 | 조 압 | 조성규 |
| 조영국 | 조형오 | 최재석 | 최인숙 | 한희원 | 한영수 |
| 홍석강 | 홍성호 | 황용호 | 황용성 | | |

- | | | | | | | |
|-----|-----|-----|-----|-----|-----|-----|
| 직원 | 김은희 | 권지연 | 권학자 | 김홍모 | 김경희 | 김계현 |
| 김규환 | 김대영 | 김두재 | 김명숙 | 김갑중 | 김갑수 | 김갑수 |
| 김병호 | 김병훈 | 김상애 | 김승국 | 김영수 | 김영철 | |
| 김유연 | 김재선 | 김정환 | 김종복 | 김종애 | 김종욱 | |
| 김종철 | 김종호 | 김진관 | 김진영 | 김진원 | 김정욱 | |
| 김철식 | 김태식 | 김혜복 | 노정오 | 류경우 | 류정운 | |
| 문국래 | 박광호 | 박근서 | 박노경 | 박동수 | 박재호 | |
| 박상호 | 박세훈 | 박순희 | 박인향 | 박종민 | 박종진 | |
| 박진근 | 박학상 | 박현숙 | 박현태 | 박환오 | 박홍선 | |
| 백경선 | 백우석 | 변민우 | 변재덕 | 서광호 | 선상규 | |
| 손상규 | 송민수 | 송중수 | 신기훈 | 신일식 | 신하균 | |
| 신혜원 | 심상진 | 안준욱 | 안종철 | 오광진 | 오복중 | |
| 우수인 | 우종호 | 유광보 | 윤건배 | 윤종우 | 윤희선 | |
| 윤정욱 | 윤주영 | 이강현 | 이건배 | 이경식 | 이광구 | |
| 이광휘 | 이근태 | 이동규 | 이동은 | 이범수 | 이성인 | |
| 이영숙 | 이은희 | 이홍서 | 이향진 | 이향희 | 이조경 | |
| 임혜순 | 장금숙 | 장미경 | 장경선 | 장경훈 | 장옥자 | |
| 정은희 | 조병필 | 조미경 | 차준환 | 황재희 | 최국진 | |
| 최봉주 | 최일우 | 최정숙 | 최창선 | 최희환 | 한정란 | |
| 한문우 | 함영란 | 현병주 | 황민수 | 황영수 | 황우영 | |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2차 후원금 접수기간: 98. 4. 13 ~ 4. 24) 동국참사람 봉사단

동대신문 기획광고

교육개혁,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1996년, 교수·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부제 전면 실시!

1998년, 비민주적 절차로 시행된 학부제가 3년째로 접어든 지금, 학내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정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교육개혁,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시험 무료시력검진 실시 샘물안경원에서 오늘부터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은 무료 시력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다량한 지하샘물 안경원 앞에서 오늘(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자동 굴절 검안기와 Trial Set를 이용한 시력검정 △안경 및 콘택트렌즈 무료 점검 △이슈브 콘택트렌즈 무료 시력착용 △기타 시력보호 상담 등이 이뤄진다.

취업 인·적성검사 실시 내일까지 3회에 걸쳐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기서·물리4 이하 졸업준위)는 내일(14일)부터 15일까지 학생 생활상담센터와 공동주최로 '취업대비 인·적성검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인·적성검사 희망자는 오늘(13일)까지 졸업위에 신청하면 되고, 검사비용은 4학년은 2천원, 1·2·3학년은 3천원이다.

검사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14일 오후 3시(L501) △14일 오후 7시(L501) △15일 오후 2시(L401)

박연수씨, 강사로 전역 기증

여학생부처(처장=임민희·사학)에서 지난 6일 '대학생을 위한 제테크'라는 주제로 실시한 전문가 초빙 집담회에서 강사로 출연한 박연수씨가 강사료를 여학생부처에 전액 기증했다.

"제테크를 위해서는 예산을 잡고 그 예산에 맞춰 지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역설한 박연수씨는 현재 신영 재무컨설팅 대표로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강사료를 전액 기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여학생부처 전미영 상담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학생들을 위해 기증한 것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문과대, 16일 해오름식

제30대 문과대학생회(회장=최진범·영문4) 해오름식이 오는 16일 오후 5시에 명진관 앞에서 치러진다.

대학원 학술 연구비 운용안 체결

학과별 지원금 높게 책정... 활발한 연구 기대

대학원총학생회(회장=박정진·정치학 박사과정 2학기)와 일반대학원 교학부(부장=박정국)는 물의를 일으켜 왔던 학술연구비운용에 대한 98학년도 대학원학술연구비 예산(안)을 3차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8일 체결했다.

이로인해 그동안 이렇다할 명분 없이 집행된 학술연구비는 올해부터 그 항목을 정해 집행하게 됐다. 각 항목별로 편성된 예산액을 살펴보면(괄호 안은 지난해 사용내역) △각 학과 학술지원비=52개 학과×40만원(25개학과×20만원)

△신문발행경비=3백50만원×6회(2회에 걸쳐 5백24만2천원) △점산교육 및 전산교육비품 구입=1천5백만원(1천4백27만2천원) △각종 행사비(원우 한마당·수련회 등)=1천만원(9백17만원) △각종 학술제(상·하반기 학술제 등)=1천만원(7백26만원) △각종 기자제 구입비=1천만원(8백54만5천원) △대학원 연구노조·대학원 요람제작=1천5백만원(연구노조제작비 1천2백90만5천원) △대학원교학부 사무용품비 구입·외국어시험 문제 출

제비 및 간담회비=1천만원(사무용품비품구입비 1천2백55만3천원+시험출제비 4백56만4천원+간담회 경비 3백39만원) △휴게실공사비(담해년도에만 해당)=2천만원 등으로 총액은 1억3천6백80만원(8천90만1천원)이다. 이 예산안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지난해에 비해 각 과 학술연구비 지원이 크게 증액됐다는 것과 대학원 교학부측의 사용액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학술연구비 예산을 보다 많은 대학원생들의 학술연구에 쓰이도록 했다는 점이다.

헌혈 행사 4백 79명 참여

동국사랑 몸소 실천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 직원노조(위원장=김창욱), 대학원총학생회(회장=박정진·정치학 박사과정 2학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선진·수교4)의 위내 4주체가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동국인 나라살리기 헌혈행사에 학생 및 교직원 등 총 4백 79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3일간 도서관과 동국관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가해 동국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번 헌혈 행사는 헌혈증 보급도 함께 실시했는데, 총 58%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와관련, 노동조합의 최일우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준 동국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전하며 "모아진 헌혈증은 동국혈액은행(가칭)을 운영하는데 쓰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혈증이 필요한 학생이나 가족은 노동조합 사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대학원 각종 행사 개최 17일 만해광장·문화관서 제14대 대학원총학생회는 오는

17일 '자 힘을 낸시다'라는 기조 아래 원우한마당과 대학원총학생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원우한마당은 축구·농구·족구·배드민턴 등 각종 종목별 16일부터 예선전을 치른후 만해광장 및 대운동장, 체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이어 오후 5시에 학술문화관 계단 광장에서 출범식이 열린다.

출범식은 △가극단 '금강' 축하공연 △영상으로 보는 대학원 발전 △분행사 △시상식 △피켓이 '원우 노래한마당'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관련 대학원 총학생회의 관계자는 "원우들이 많이 참여하여, 화합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날 좀 보소... 지난 6일 불상사에서 6기 헌혈연 의장후보로 출마한 고희철(외대 응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씨의 유세가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유세장은 쓸쓸하기만 했다. 남대철 기자

'학부제 성과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청회'

주체간 공청회 활성화돼야 학내 구성원 높은 참여... 논의 부족 아쉬워

"3년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라고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 3학년학생은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자신이 입학할 때부터 시행된 제도인 학부제에 대한 각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가 아쉬웠음을 표현하는 이 학생은 학내 주체들이 함께 고민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표했다.

지난 8일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가 주최한 '학부제 성과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이름만으로도 학내 주체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의가 없는 교수들과 대학원생, 학생들이 예정시간전부터 삼삼오오 자리를 매워 새로 시행된 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공청회는 좌석이 부족해 통로까지 차지하고 앉은 학생들의 모습에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구준서(전자공과) 총학생회장은 "몇 년전에 공과대에서 제3캠퍼스 이전에 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한쪽의 주체만이 아니라 관련주체들이 모두 모였다. 깊숙한 논의를 하지 못했지만 공청회에 학내 주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장을 만들고 핵심사안에 대해 일방적 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이번 공청회를 평했다. 그러나 오대현(국문과 박사과정 2학기)대학원 부총학생회장은 "학부제와 가장 밀접한 대학원을 대표해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형식에 그

친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나 조금은 엇갈리는 이러한 평가속에서도 이번 공청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학내 주체들이 '고등교육법'이라는 뜨거운 감자로 한자리에 모여 흥겹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분교에서는 학내의 주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3년전'이라고 말하던 학생의 말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당시에 이와 같은 공청회의 자리가 있었다면 학부제는 모든 학내 주체들에게 다른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이날 사회를 보며 공청회를 진행했던 조의연(영문학) 교수회 총무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 큰 수확이었다"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학교측에 건의서를 만들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학부제의 종속시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토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앞으로도 중요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야말로 좋은 의견과 합의를 통한 행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한 참석교수의 말은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어 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시행될 것이다.

이에 앞서 학내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신중하게 논의를 한다면 좀 더 내실있게 발전하는 '동국'이 되지 않을까?

유철주 기자

노동절기획단 14일발족

다음달 1일 개최되는 노동절 준비를 위한 '노동절 기획단'(단장=박영민·건축4, 제14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내일(14일) 오후 3시 불상사에서 발족한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생존권 보장" 등을 주된 기치로 출범하는 노동절 기획단은 학내사업으로는 '노동절 살인철거 반대 서명운동 및 모금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노동절 기획단이 갖는 정치적 목표를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영민 단장은 "노동절의 의미를 학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과대, 오늘 개강집회 '재벌해체와 고용안정'

사회과학대 학생회(회장=이종렬·정외4)는 오늘(13일) 오후 1시에 개강집회를 갖는다.

'재벌해체와 고용안정'이라는 구호아래 열리는 이번 집회는 학내에서 이루어지며, 퍼포먼스 및 거리 선전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회전무대

O...교정은 봄! 건물안은 여름! 지난 7일 오전, 여름을 연상케 하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건물마다 난방이 실시돼 동학인들이 크게 열받았다.

이는 학교에서 지난 10일까지 각 건물 난방을 실시하기로 한 계획을 더운 날씨에도 투철한 책임감(?)으로 실천한 것인데, 이에 열(?)받은 어느 동학인 월, "그해 겨울은 따뜻했나? 올해 봄은 뜨겁네."

보조금

O...얼마전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 각 단과대마다 설명회가 진행되었는데...

모교마다 설명회에서 한 교수가 담당자에게 "올해 꼭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교육부 지침이라 어길 수 없는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혹시 국고 보조금?"

배신

O...지난주 월요일, 영어 교재를 팔려고 온 모 회사의 직원들이 만해광장의 계단에 앉아 분교 학생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한참 설명을 듣고 있던 한 학생, "다음에 신청할게요. 또 언제 오세요?"라며 교묘히 빠져나올려고 했으나, "예전과 달리 요즘 동대생들은 공부하려는 열의가 별로 없어서 자주 안오는데요"라는 말에 오히려 당황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학생들에게 한마디 "앞으로 공부안하면 배, 배, 배신이야"

봉쇄

O...혁신의 장도 막다니! 지난 10일부터 영남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6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6기 한총련을 벌써부터 이적단체로 규정해 놓고 출범을 철저히 막으려고 한다. 이에 한총련의 사수, 혁신을 외쳐온 한 학생은 과거 정권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한마디 "YS와 DJ가 등지 관계타러나 맞긴 맞나 보네!"

98학년도 동국대학교 후기 대학원 특별전형

1. 모집학과 및 인원 : 각 학과별 약간명

계	명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일어일본, 사, 미술사, 철, 국민윤리, 교육,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기계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예체능계	연극영화, 체육, 미술		
경주 캠퍼스	한문, 화, 응용생물, 가정, 경영, 전자계산, 안전공, 한의학, 의학		

※ 본 대학원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내에 수료 가능함.

2. 지원자격

- 1) 석사학위과정 : 대학원학원 평점평균 4.5만점 기준 3.0이상인 자
 - 2)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전학기 평점평균 4.5만점 기준 3.0이상인 자
- ※ 단, 평점평균 만점기준이 다른 경우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3. 전형방법 :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4. 지원서 교부 : 98. 4. 22(수) ~ 5. 8(금)

5. 지원서 접수 : 98. 5. 6(수) ~ 5. 8(금)

지원서는 09:00~17:00까지 본 대학원 교학부에서 교부 및 접수함. (토요일 및 공휴일은 본교 학술문화관 수위실에서 교부함.)

6. 전형일시 : 1998. 5. 15(금) 10:00

※ 석·박사과정 동일체 출신이 아닌자도 응시할 수 있음(한의, 의학과는 제외)
※ 문의 : 대학원 교학부(TEL:260-3093~4, FAX:260-3685)

대학원장

우리주위에는 젊은 대학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는 동국인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사회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 발전은 물론 본교의 건학이념을 달성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전문분야별 사회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사회봉사 활동계획

- 1) 신청서 접수기간 : 98. 4. 8(수) ~ 4. 16(목)
- 2) 봉사활동기간 : 98년 4월부터 연중계속
- 3) 분야별 봉사활동 내용

구분	활동내용	비고
무의탁노인 돕기	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가정방문, 상담, 청소, 세탁, 만병, 심부름, 시선보수 후원	
모자간접 돕기	가정방문, 상담, 학습지도, 시선보수 후원	
복지시설 돕기	복지관운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후원	
남산사랑봉사회	꽃가꾸기, 정태조사, 먹이주기, 청소하기 등	
환경지킴이 봉사회	교육환경 가꾸기, 재활용	
환경사랑 봉사회	자연 보전 활동, 환경주변의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수질 오염예방, 환경친선회 개최, 오염원인을 찾아 관계기관에 시정요구	
고아원돕기 봉사회	결연, 학습지도, 원지, 집 초대하기 후원	
장애인돕기 봉사회	청각, 수화, 난독, 운동, 가이드 헬퍼 후원 (시각, 청각, 지적부자유, 뇌성마비 등)	
긴급구조 봉사대	각종 긴급 재난시 구조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정신과 가치있는 삶을 배우도록 함(* 산악팀, 해양팀, 소방팀, 재난팀, 스포츠팀, 안전팀 등)	
독경 봉사회	동국가족의 상가를 방문하여 위로와 독경을 함.	

※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시 학점부여(학점PASS) 및 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참여방법 : 장학과 소정양식 작성제출(본관 2층)

문의처 : 장학과(동국참사람봉사단) TEL : 260-3035

-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봉사대상 단체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은 참사람봉사단으로 연락바랍니다.

동국참사람봉사단장

98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1. 교육대상 : 본교 예비군 전원

2. 교육대상 제외자

- 1) 98년도 전역자
- 2) 92. 12. 31일 이전에 전역한 사병(전역 6년차 이상)
- 3) 90. 12. 31일 이전에 전역한 장기하사 이상 간부(전역 8년차 이상)

3. 교육시간 : 8시간

4. 교육일정(대학별)

5. 11(월)	5. 12(화)	5. 13(수)	5. 14(목)	5. 15(금)
정보산업대 공과대 (산업공/식품공제외)	공대(산업공/식품공) 사회과학대	불교대, 이과대, 사범대, 대학원	생자대 이부대	법과대 문과대 예술대
	경상대		교직원	

5. 교육장소 : 노고산 중로, 중구훈련장(제 1905부대)

- 1) 구파발 전철역에서 송추방향으로 300M 지점에 관광버스 대기 (06:30~07:10분 까지만 운행)
 - 2) 시내버스 : 구파발 전철역에서 156번(북한산성 → 송추)이음
- ※ 156번 중에 삼천리공행 절대탑승 금지

6. 복 장 :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장, 허리띠)

7. 휴대 품 : 신분증, 주민등록증 지참(본실자·학생증, 면허증, 예비군 언데서 원성카드 복사)

8. 특별(유)강조사항

- 1) 08:00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위병소 통제)
 - 2)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장, 허리띠 중 1가지라도 미착용자 절대 입소불가
 - 3) 해당일자에 교육을 참석 못할 경우는 예비군 본부에 신고
- ※ 예비군 연대본부 연락처 : 260-3072-3

예비군연대장

고등교육법 진단 시사논단

총학생회, 교수협의회 인정않는 고등교육법 학과통합·학부제 실시따른 문제점 불거질 듯

97년 11월 18일, 49년에 제정되어 50여년간 시행되던 교육법을 대체하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등 6개 대통령령안이 98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로써 금년 3월부터 현행 교육법 및 교육법 시행령은 폐지되고 새로운 교육 3법 및 관련 시행령이 교육현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김영삼 정권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법을 새로운 교육 3법으로 분리 제정한 것은 일단 수고할 만하다.

자지활동은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는 조항은 그 조항제목이 '학생회'에서 '학생자치활동'으로 수정되었다. 이 변화는 96년 여름 연세대 한총련 모임사건과 그 강경진압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 정치권의 논리를 수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어쨌건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파당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학생의 권리 조항을 삭제한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학생회' 용어 삭제는 학생회의 불인정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앞으로 학생과 학교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자로 구성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대학교육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대학의 지도를 위하여 대학 대표자 협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합의된 의견을 제출하는 교수협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순된 처사다. 몸통이 없는 머리, 뿌리 없는 열매가 가능한 것인가? 직권노조는 인정되지만, 총학생회나 교수협의회가 인정되지 않는 곳, 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사회이다.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반하여, 교육부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학생선발 계획을 세우라는 권고 사항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불구하고, 대학들은 시행령이 정해진 이상 교육부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논리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졸속으로 학과통합과 학부제 실시를 하는데 따르는 물의가 앞으로 대학사회에서 계속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시험기간 찬반 양론

교수·학생 합의후 유동적 결정 바람직

교수에 따라서 중간고사를 치르는 날짜가 한달씩이나 차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수가 자율적으로 시험기간을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좌마다 시험이 흩어져 있어 학생들이 시험에만 앞매일 수 있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교수의 수업 자율권 보장과 학생들의 시험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지만 반면, 단기간에 시험을 모두 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시험기간이 정해진 것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했다. 이렇게 시험기간을 정해놓는 학교가 있는 반면, 성신여대의 경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분리해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3월의 기한을 정해놓고 모든 교양 강좌의 시험을 치르며, 전공시험은 교양 시험기간을 전후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 시험기간은 길어질 수 있지만 전공시험을 교양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의 이유로 강의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시험 기간이 늦춰진다. 한 예가 오는 17일에 실시되는 4.19등반대회와 5월8일의 개고기 날 행사이다. 전체 휴강을 실시하는 두 개의 행사가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어서 금요일 강좌들은 시험기간도 강의일정이 부득이하게 미뤄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물리학과와 강태원 교수는 "학교측에서 행사를 계획할 때 되도록이면 수업일정에 방해가 되지않게 잡아야 한다"며 "교수들도 부득이하게 수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보강을 통해 일정을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사설: 미래지향적인 양심으로 거듭나야. 동대신문은 오는 15일 창간 48주년을 맞이한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먼저 1950년 창간된 이후 반세기만에 걸친 온갖 풍상들을 여러 측면에서 회고해 보자. 그러나 허투루 다르게 격변하는 대학의 환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단순한 회고에 머물지 말고 현재를 앞장 서서 선도할 것을 요구한다. 아니 이 시대를 관통하는 큰 흐름을 체득하여 불확실한 미래에의 전망까지 펼쳐보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SK Telecom advertisement for Speed 011.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family and text describing the service's benefits. Text includes: "스피드011 KO승!", "도저히 못 참겠어. 회사 앞 길거리에 산 게 많이 나왔는데 나도 하나 장만해야지",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었다!", "스피드011 BEST & BEST 대축제", "스피드011은...".

대학언론도 언론이다

비판, 대학신문의 생명

대학은 교육 및 연구와 더불어 비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대학의 비판기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인간이나 제도나 사회든 비판을 필요로 한다. 대학과 대학 사회를 대변하는 대학언론도 물론 좋은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실제로 대학이나 대학언론은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곳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정의는 당연히 거짓과 불의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대학이 사회현실로부터 어느 정도는 절연되어 있는 상아탑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유로운 토론의 공간이며, 아직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의 전당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와 같이 일반 언론계가 집권세력이나 기득권세력과 같은 강자들을 대변하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대학신문과 같이 기득권세력이나 보수 이데올로기에 얽매지 않는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언론활동은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대학신문은 우리 사회의 대안적인 언론으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신문을 언론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고 대학신문의 학생기자들은 생계를 의존하는 피고용자들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에의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나 그 대리인인 중간교수와 대결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대학신문이 운영비 대부분은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대학신문의 일차적인 대상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기도 한 학생기자들의 주체적의식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학교측이나 중간교수는 교육자로서의 교수와 피교육자로서의 학생이라는 대학사회의 일반적 관계를 대학신문의 중간교수와 학생기자 사이에도 적용하려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나 중간교수는 배우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무조건 그들의 지시에 따르기를 바라고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기자들은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특수사회의 규칙에 어느정도 속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언론의 자유 또는 편집의 자율성을 내세워 학교나 중간교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것이다. 특히 그런 지시가 외부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

고 의심받거나 학교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더욱더 크게 반발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학생기자들은 자신들이 아직은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행동이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학교나 중간교수의 주장이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인식의 전환은 학교나 중간교수에게 요구된다. 학교나 그 대리인인 중간교수에게는 대학신문을 단순한 교육의 연장수단이 아닌 언론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대학언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언론, 특히 대학신문은 하나의 당당한 언론이다. 대학언론은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이상주의적 성향을 띠며, 도전의식과 실험정신으로 충만하고, 진실과 정의를 배우며 추구하는 대학생들에 의해 제작되고 읽히는 언론이다. 그래서 그 논조는 진보적이고 지배세력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집권세력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보수언론이 지배적인 언론 상황에서는 그 존재의가 더욱더 빛나는 소중한 언론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대학언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언론의 논조가 다소 과격하고 냉소적이라도 관용하고, 그 비판이 거칠고 직설적이라도 인내하며, 언론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적 표현이나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나 하는 실정법상의 조항으로 대학신문이나 그 기자에게 재판을 물리려 해서 안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의 언론들이 정권이나 자분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여전히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대변자로서 역할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정권이나 자분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진보적 대안언론으로서 대학언론의 역할은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거의 유일하게 대학언론만이 사심없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이다.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대학신문의 역사와 전망

대중언론 구현을 위해 내딛는 힘찬 발걸음

언론의 의미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의견과 사상을 교환하면서 인식의 범위와 의식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언론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모습을 전해주고 그 모습을 설명해 주거나 미래의 삶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언론이 가진 거대한 힘 앞에 경외하거나 스스로를 연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언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언론의 주인 또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대학과 대학인의 삶 그리고 대학신문 흔히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나 '학문탐구의 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전의식과 실험정신으로 충만하고, 진실과 정의를 배우며 추구하는 대학생들에 의해 제작되고 읽히는 언론이다. 그래서 그 논조는 진보적이고 지배세력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집권세력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보수언론이 지배적인 언론 상황에서는 그 존재의가 더욱더 빛나는 소중한 언론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대학언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언론의 논조가 다소 과격하고 냉소적이라도 관용하고, 그 비판이 거칠고 직설적이라도 인내하며, 언론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적 표현이나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나 하는 실정법상의 조항으로 대학신문이나 그 기자에게 재판을 물리려 해서 안된다.

대학신문의 지향은 분명 대학다움과 대학정신을 살리는데 있어야 한다. 대학을 진정한 진리 탐구의 장으로 대학인을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되돌리는데 대학신문의 지향은 있을 것이다.

대학신문의 발생과 발전과정

1. 대학신문의 기원
우리 교육기관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발행

최초의 신문은 배재대학 학생회인 협성회에서 발행한

'협성회 회보'였다. 이 신문은 학생들의 애국심과 학구심을 돋우어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발행하였으며 시를 늘린 많은 사람들은 언론에 의해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의견과 사상을 교환하면서 인식의 범위와 의식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언론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모습을 전해주고 그 모습을 설명해 주거나 미래의 삶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언론이 가진 거대한 힘 앞에 경외하거나 스스로를 연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언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고 언론의 주인 또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성회 회보는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발행되기는 했지만 대학의 틀을 갖추지 못한 교육기관에서 발행되었다는 점과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 현재 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대학신문의 시초로 보기는 힘들다.

2. 대학신문의 발전과정

해방이후 우리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좌우익의 심각한 이념 갈등과 미군정의 신덕통치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학교의 극한 정치참여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1947년 중대고 고대 등 두 학교에서 순수학문 연구지 성격의 신문을 창간한다. 이후 50년대 중반까지 각 대학신문들이 창간된다. 이시기의 대학신문들은 주로 학교당국의 주도로 창간되었으나 우리 학교와 같이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경우도 있었다. 50년대 신문들은 대부분 학교 홍보기능이나 순수학술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의 특성상 사회비판적 기사나 교육여건의 미비점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중

지나 필화사건을 겪기도 하였다. 이시

기의 대학신문의 주된 지향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화'에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4·19혁명은 대학신문에도 커다란 판도변화를 불러왔다. 이때부터 대학신문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주춤할 수밖에 없었으나 간헐적으로나마 정권의 탄압에 맞서기도 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정은 마찬가지로 유신이후 엄격한 사회현실속에서 대학신문도 좌절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10·26이후 찾아온 민주화의 봄은 대학신문에 다시한번 희망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시기의 대학신문은 유신체제의 억압을 여러 욕구들을 한꺼번에 쏟아놓기 시작했다.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과 민중들의 고통, 통일문제에 까지 폭넓은 관심이 조소스런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2·12와 5·18은 다시한번 좌절을 안겨주었다. 기관원의 학내 상주, 기사검열 등으로 대학신문들은 새로운 활로 찾기에 고심하고 아카데미즘을 사회참여와 연결시켜 올바른 현실인식의 틀을 제시하기도 했다.

84년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에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된다.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분야들에 많은 지면을 사용, 이틀을 소개하고 민주화와 통일의 논의를 지면화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운동의 사상과 이론을 토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어 대학이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대학신문은 또다른 위기를 맞게되고 새로운 모색을 시작하게 된다.

3. 대학신문의 자리찾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학신문의 현실의존의는 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대학신문의 모습들이 변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언론의 본연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학신문은 독자대중과 호흡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올바른 지향을 제시하고 삶을 발전시키는 진정한 언론의 의미에 부합하는 신문만들기에 접근하고 있다. 언론의 생산과 소유를 대중에게 되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신문의 특징과 역할

1. 대학신문의 특징

대학신문의 특징은 우선 물질적대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신문의 제작비용은 교비에서 사용된다. 교비는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해 조성되고 따라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대학신문의 물질적대사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 부분은 언론의 의미에서 제기한 생산과 소유를 대중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소유의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발행주체면에서도 대학신문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대학신문의 발행은 대부분 학생기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작주체와 정의로움이 있다. 또한 대학신문의 큰 특징중에 하나가 된다. 또 이는 생산의 대중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앞에서 제기한 두가지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요인은 대학신문의 물질적대사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역사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새것과 낡은 것의 필연적 대립, 한국사에서 대학이 가지는 건강성 등이 있으며 주체적 요인은 제작주체들의 의의성, 즉 언론에 대한 관점과 자주성에 있다.

2. 대학신문의 역할과 전망

대학신문의 역할은 대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대중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것은 어떤 언론매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대중언론으로 자기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중언론이란 언론의 생산과 소유의 주인이 독자대중이어야 하며 독자대중이 주인주체로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이 항상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 속에서 생활하고 느끼며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언론활동을 해야한다.

다음으로 대학신문은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충실해야 한다. 독자대중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올바른 지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활동을 해야한다.

대학신문이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대학신문은 진정한 대중신문으로, 생산과 소유가 독자대중에게 있는 올바른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석중

본사 전 편집장 ·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열린대학 추진운동 '대학이 일어서야 나라가 산다'

'희망만들기 21 대학생 자원봉사 지원사업

'대학생 1만 구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열린대학 추진위원회에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린대학생상의 구현'을 목표로 대학생 자원봉사지원 사업을 전개합니다. 이에 '자원봉사 상담은행'을 개설,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학생단체·동아리·개인 등)과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기관, 시설, 단체에 연결시키는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자원봉사 지원기금'을 마련하기위해 1구좌를 5,000원으로 책정, '대학생 1만구좌(5천만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대학인 1만구좌 만들기 운동' 후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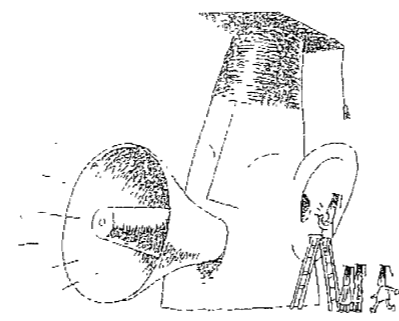
- 목적 - 자원봉사 대상기관의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대학생 지원 봉사원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
- 기금 1차 목표 - 총 1만구좌(50,000,000원)로 설정
- 기금조성방법 ▶ 1구좌를 5,000원으로 책정, 대학생 1구좌 만들기 운동의 전개
 - ▶ 10원짜리 동전 모으기 운동전개(저금통 배포)
 - ▶ 기업 및 일반사회 인사의 후원
 - ▶ 사업을 통한 사업수익 확충
- 지원효과 - 자원봉사 활동 연인원 기준 5,000명 - 1만명 지원효과 기대

● 후원방법

'대학생 1만구좌 만들기' 운동에 참가, 후원하실 분은 별지의 '자원봉사 후원 신청서'를 작성, 본회로 접수한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된 내용은 대학문화신문 지면을 통해 후원자의 성명, 소속, 후원금액을 명기하여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뜻있는 대학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후원구좌 (예금주 대학문화신문)
- 조총은행 534-01-001480 • 우 계 국 013086-0221724
- 국민은행 059-01-0522-638 • 주축은행 445701-01-002081



대학문화신문 열린대학추진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2-8, 세정빌딩 4F(137-030)
대표전화 3446-1897/팩스 3446-4874/유선번호 011-3446-1897/이메일 열린대@open.ac.kr

대학생 자원봉사 (참가·후원)신청서

공통	성명 (대표자명)	성별
	소속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기타 (후대/보충)
지원봉사신청	주소	
	봉사분야	(본인이 희망하는 봉사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상세히 기재)
후원기금신청	후원구좌	(1구좌는 5,000원입니다.)
	입금방법	은행구좌 () 구좌 () 은행 ()

본인은 열린대학 추진운동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며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참가, 후원)을 신청합니다.

1998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대학문화신문 열린대학추진위원회 귀중

● 위 양식에 준해 작성 또는 팩스(3446-4874)를 통해 본 위원회에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은 본사 48주년 창간기념을 맞아 5대신문과 대학신문에 대한 본교생들의 인지도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조사로서 본교 동아리 통계조사연구회에서 통계를 산출하였습니다. 편집자

설문내용 분석

독자참여 활성화 돼야 신속한 정보와 다양한 읽을거리 아쉬워

본사가 창간 48주년을 맞이하여 본교생 4백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교의 학생들은 학내보도 기사를 가장 많이 보며, 신문의 정보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신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사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학내기사가 50.3%로 가장 많았고 △문화기사 17.1% △여론면 12.4% △사설 및 칼럼 11.5% △사회기사 8.7% 순이었다. 이유는 학내소식이 가장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시사성, 재미 등으로 학내보도편을 선호함을 드러냈다.

97년 2학기부터 새롭게 바뀐 편집에 대해서는 29.5%가 편찮다, 7.1%가 별로 좋지 않다, 63.4%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신문지면에 대한 학생참여도 질문에 47.8%가 참여가 잘된다, 52.2%가 참여가 잘 안된다고 답했고, 특이할 만한 점은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80%정도가 참여가 잘 안된다고 대답해 경주캠퍼스에 대한 기사와 기획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이텔의 동대문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기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85.1%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기사 서비스를 알고 있는 학생들중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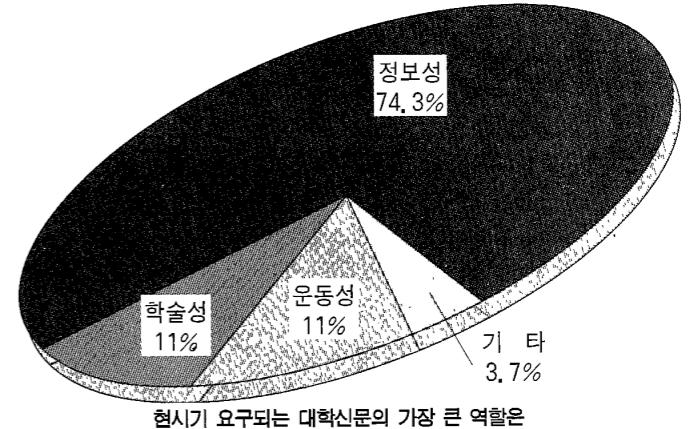
70.1%가 그저그렇다고 답해 통신상의 기사 서비스에 대한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료제공은 물론 홍보가 더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신문에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컴퓨터 관련기사 32.9%, 노동·사회분야 29.9%, 정치분야 14.8%, 기타 22.4% 등이다.

독자들이 생각하는 동대신문의 문제점은 △폭넓은 기사가 아쉽다 41.6% △홍보가 부족하다 26.4% △재미가 없다 17.2% △학생참여가 부족하다 7.8% △기타 7% 등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시기 대학신문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성 74.3%, 학술성 11%, 운동성 11%, 기타 3.7%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신문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대학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성 35.4% △자유성 31.4% △독창성 21% △기타 12.2% 등으로 나타나 학내 정보를 습득하는데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철주 기자



<설문내용>

<동대신문>

1. 동대신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사는.
 - ①학내기사
 - ②사회기사
 - ③문화기사
 - ④사설 및 칼럼
 - ⑤여론면

1-1. 문항을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간략하게)

2.97년도에 저희 신문사는 재편집을 통해 타대학과의 차별성 및 독특한 편집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편집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편찮다

②별로

③좋지 않다

④잘 모르겠다

2-1. 위 문항에서 좋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동대신문은 학생들의 의견이나 참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3-1. 문항 '아니다'를 선택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절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4. 본사는 지금 하이텔 동대문을 통해 기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①알고 있다

②모른다

4-1. 알고 계시다면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매우 만족

②그저 그렇다

③불만족

5. 동대신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들은 무엇입니까.

①노동·사회분야

②정치 분야

③컴퓨터 관련 분야

④기타()

6. 현 동대신문에 불만이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신문>

1. 현시기 요구되는 대학신문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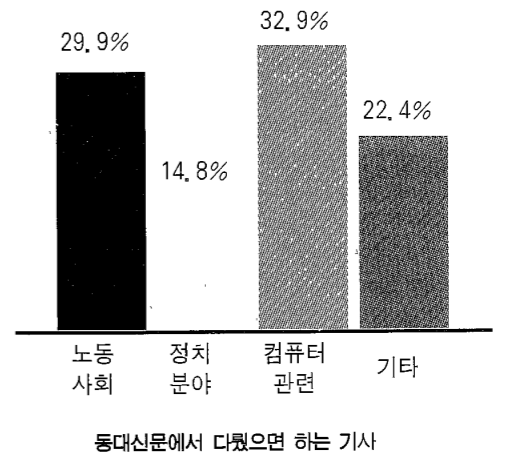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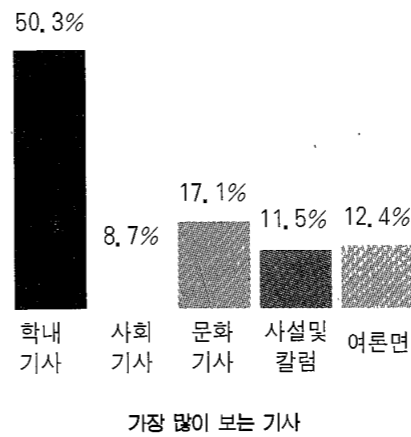
①정보성

②운동성

③학술성

④기타()

- 2. 대학신문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년	1	2	3	4
인원수(명)	198	103	55	45
백분율(%)	49.1	25.6	13.85	11.5

언론자유 죽는다

“대학언론탄압 아직도 진행중”

전국 대학신문 중 서울·경인지역과 부산·울산지역 대학신문이 편집자들과 대학신문 언론자유에 심각한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경인지역 약 5개 대학신문사와 부산·울산지역의 2개 신문사가 개강호 제작시 기사 수정·삭제를 강요하는 주간교수와 학교본부 측 등에 의해 제작과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울산대의 경우 지난 2일 개강호

작업을 하고 있던 도중 대학본부 홍보계장의 “내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신문을 만들수 없다”는 주장으로, 기자와 주간교수간의 신문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제작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편집국 기자들은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학생기자들은 ‘울산대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학내 선전전과 더불어 계속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제대의 경우 또한 개강호 제작시 주간교수가 대학관련 기사와 제목에 대한 삭제와 수정, IMF해상 관련 광고 게재를 거부하며 신문발행을 중지시켰다. 경인지역의 인양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역시 개강호 작업 중 주간교수가 대학관련 기사와 사회관련(철거민 관련, 북한방송의 허와 실)기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삭제를 요구하며 학생기자들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을 중지했다. 그러나 학생기자들은 계속적으로 주간교수

와 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편집자들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인정하지 않고 20일 현재 편집국장을 해임시켜 마찰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병지대의 경우는 지난해 2학기 신문 작업 중 주간교수가 전체 8면 신문중 4면에 대한 기사를 전면 삭제한 가운데 교수 논문으로 나머지 4면을 편집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요구사항을 거부한 기자들에게 무기한 신문 발행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학생 한명 좁은 내가 알아서 제작시킬 수 있다”라고 힘박하며 편집국장 인선거부, 기자임명권과 선출권을 남용하면서 “전액 장학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현재 기자선발을 새로이 진행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의 많은 대학신문사들이 대학관련 비판기사에 대한 삭제와 수정, 사회관련기사에 대한 삭제, 사회관련 광고에 대한 게재 거부등을 보이며 크고 작은 마찰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은 96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운동 죽이기’의 한 방법인 교육부의 ‘학원 안정화 대책’과 ‘학생지도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진리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비판과 여론 형성·대학신문의 기본적 본성마저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사의 사전 검열과 대학과 사회에 대한 비판기사의 무조건적인 삭제와 수정이라는 측면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심각한 편집자들권을 침해할 수 있다. 더불어 신문발행증지를 통해 독자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반증되고 있는 것이다. 예산 삭감의 측면에 있어서도 IMF라는 경제위기를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교수·교직원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학생복지예산을 최우선으로 삭감하면서 학생자치권을 축소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언론활동에 대한 제한과 규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편집자들권 침해와 대학언론탄압에 대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대학신문은 진리의 파수꾼이며, 시대의 등불이기에 ‘알아서 기는 해바라기’를 거부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대학의 부정과 모순 및 비리에 대해 대학신문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진실이 은폐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언론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사회가 자유민주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할 뿐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홍보지화 계획 철회, 편집자들권 보장, 교육부 공문을 구실로 자행되고 있는 대학언론 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어려운 경제위기와 더불어 혼란해질 사회정세, 학생운동 관련 공안 탄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언론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정론직필을 지키려는 대학신문과 학교당국의 편집자들권 침해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기원 공동기자단



815만세! 콜라독립만세!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
세계 제1의 콜라와 싸워 살아남겠다는 생각을 한게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25년간 콜라를 만들어왔는데

우리는 가진게 아무 것도 없다. 돈도, 명성도, 기발만한 든든한 계열사도
오직 가진 게 있다면 세계 제1의 콜라를 만들어온 노하우뿐.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한다. 우리 콜라를 만들자
맛만 뛰어난다면 우리 콜라라고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우리 콜라도 몇십억,
몇백억불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세계적인 콜라가 되지 못할 이유가 뭐냐

이름은 815다. 콜라도 이제 독립하자는 의미에서 815다
815만세! 대한민국콜라 만세!

815 콜라독립군 모집

조금 있으면 대학축제가 시작됩니다
이 축제기간중 우리나라 콜라 815의 홍보요원이 되실 분을 모집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돈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축제를 멋진 카트너보다는 우리나라 콜라 815와 함께 자발 분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응모해 주십시오
<http://www.bumyang.co.kr>

25년간 콜라를 만들어온
범양식품(주)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진단과 공청회 지상 보도

교육개혁 총론

본교의 '교육개혁' 진행 정도와 현 학부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현 학부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줄속시행우려... 민주적 절차 통한 주체간 논의 절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각 대학의 '고인'이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본교 역시 이 사안에 대한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3백여명의 교수·학생·직원 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회(회장=김기익·사회학) 주최로 열린 '학부제 성과 및 새로운 고등교육법 시행에 관한 공청회'를 계기로 본교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대략적 구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행 학부제의 문제점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그만큼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현 학부제의 문제점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에 대한 항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 학부제가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본교를 비롯한 대학가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1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때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개혁을 위한 평가작업이 한창인 현행 학부제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부제의 기본개념에 대한 불충분한 인식 때문에 학과들의 독립성, 나아가 전공들 사이의 구분이 제도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점과 원칙없는 학과통합으로 인해 학문의 체계가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양질의 교육을 위해 실시한 학부제가 미비한 학교행정지원과 공간·교수 부족 등으로 학생들을 '홍나물 강의실'로

몰아 넣은 셈이 되어, 결국은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는 있지만, 깊이 있는 학문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넷째, 현 학부제는 질 낮은 전공교육으로 학생의 진로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마지막으로 전공선택의 기회부여에 따른 문제이다. 이는 인기학과로의 편중, 비 인기학과의 위기론 등 민감하고 중요한 제반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어 본교는 물론 각 대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위의 다섯가지에서 파생된 제반문제를 포함하여 학부제 문제는 몇가지로 정리하는 불가는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현 학부제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

부제 확대'라는 새로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선 신중한 논의와 주체간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학부제 시행과 관련, 학생회측의 '전면 백지화'와 학교측의 '강행'의 팽팽한 줄다리기 한창인 중앙대의 경우는 정책결정시 민주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생들의 자유로운 전공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그 의미와 취지는 열린교육을 추구하고 교육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만 하지만, 그 이전에 현 제도의 문제점 해결과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체간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성호
인문학부 교수

교육개혁이 또다시 우리의 과제로 떠올랐다. 김영삼 정부가 대학교육의 개혁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대개 그렇듯이, 새로이 시행된 제도의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도 대학교육의 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그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기존의 개혁의 문제점이 현실화하고 앞으로 다가올 개혁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학부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일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유의미해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까닭은 현 정부가 기존의 것과 다른 방향의 개혁을 시행할 것을 지시하면, 우리는 그 지시에 맞추어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움직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의미한 까닭은, 기존제도의 문제점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그것을 수정·보완하고 앞으로의 개혁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과 혼란에 빠진 대학의 처지가 한심하고 가련하다. 그런데, 이런 모양이 된 것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한국사회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문적 역량과 교육적 효율성과 행정적 정의를 증진하여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 왔다면, 그리고 대학이 그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대학 인품의 정치적 집단의 책임과 높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왔다면,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학교육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논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이 중요하고 복잡한 과제에 대한 몇가지 해결의 단초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공청회 지상중계

지난 8일 열린 '학부제 성과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를 지상중계한다.



'학부제 성과 및 새로운 고등교육법 시행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 학생의 진지한 모습(왼쪽)과 치열한 토론 장면(오른쪽)



사진=남대철 기자

민주적 여론 수렴의 장

우리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의 독선적 추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리며 시행령에 따르는 개혁에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문학부 교수

1. 교육부의 지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현하려는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시사하는 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2.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적 투자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3. 최소 전공 36학점은 본교의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오는 주범중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학별 차등화를 두거나, 전공 선언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 학부제 개혁의 복수전공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 선택의 자유, 대학원 교육과의 연계성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복수 전공을 보장하는 학부제가 실시되더라도 학과 소속의 논리는 가능합니다. 6. 대학에서 학과의 종류의 근거를 단지 당시 사회의 필요나 수요자의 선호에서 찾으려 한다면 학문이나 사회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학부제의 문제가 한 개인의 권력남용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실 학부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본교의 체질을 개선 하자는데 의

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학부제 문제를 하나로 단순화 시켜 생각하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보는 학부제의 문제는 학과를 묶을 때 유사학과가 아닌 이질적인 학과로 묶는 경우에 생긴 것입니다. 처음 시행할 때 교수들이 이것을 허용한 것은 제가 추측컨대 이질적이라더라도 계속해서 전공수업이 있고 학과, 학부의 운영을 전공별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수업이 도가 없어지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처음부터 학부제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선택할 전공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 있을 때에만 학부제 및 확대가 본래 의도했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학부제가 지향했던 이상대로 현실의 제도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듭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공선택을 미리 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학과와 통합이 진정으로 선택권의 확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 학부로 묶여 있는 유사학과들중에 모두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전공 선택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적으로 학부제 시행 정신은 찬성 하지만 실현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주체들을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음에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자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사후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교수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고 보니 방향하던 학부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떨립니다.

저는 학부제 이후 교육의 질이 나아졌는가에 대해 실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전기 공학부에는 4개의 실험실이 있는데 실제로 수강생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지금은 오히려 3개의 실험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부의 사학과는 38명이고, 윤리학과는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교수님의 의미가 얼마나 될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교육의 질에 대해 한가지 더 말하자면 공학계열의 96, 97학년 학생중 휴학, 전과, 자퇴한 학생들이 빈이나 되는게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겠습니까.

양문홍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중에는 교수님들의 위기의식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회에서 이런 공청회를 주최하는 것은 전공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공고히 지켜질 것인가라 두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전공 선택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인

맞는 커리큘럼이나 내용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사범대가 학부제 확대에 왜 고려가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써 이번 자리를 통해 학부제 문제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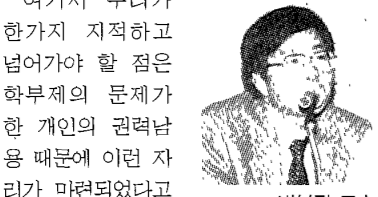
학부제가 처음 도입될 때 그 시행과정 속에서도 이런 공청회가 이루어졌다면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요즘 기업체에서 대학의 교육시스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공 최소이수학점이 36학점이므로 12과목만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현재제 아래서의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러리 전공분야를 짧은 기간내에 심도있게 배우는 전문대생을 고용하겠다고 나오니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부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의 수요에 맞추어 어느 정도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몇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우선 단일 전공자의 최소학점을 좀더 높여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된 바 있는 비인기학과에 대한 점은 증진에 복수전공의 비율을 150%에서 120%선등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일입니다.

취재부



법률학부 교수



이영환 교수



구준서 총학생회장



박성준 교수



오대현 대학원부총학생회장

동약로



학생총회

"자연대 10년 역사 이래 학생총회가 처음으로 성사되는 자리입니다." "1천 6백 자연인의 힘을 보여 줍시다"라는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들의 함성이 온방울에 울려 퍼진다. 지난 7일 오후 3시경 자연과학관 앞 붉은광장에는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10개학과(부) 학생회장들이 정족수를 파악하려고 각 개인 이름과 소속이 적힌 비표를 나눠주며 일일이 확인, 오후 3시 30분에는 6만 6백명임을 회장에게 최종 통보한다.

곧이어 "회칙에 의거하여 재적인원 중 3백명 출석에 의한 정족수의 과반수 이상을 찬성의결 정족수..." 등의 학생총회 의장을 맡은 자연대 회장의 회칙설명이 이어진 뒤 안전사항인 등록금 동결, 식비인하, 학부제 철폐 등이 의결에 부쳐졌다.

"일반적인 식대인상을 거부한다"를 주장하고 "자연대학생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식의 경우 원가가 전원을 넘지 않은 선이다"며 "이에 우리는 식당업주 교체와 식대인하를 요구하는 바다"라고 가교과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동참을 호소하자 만장일치로 비표를 흔들어 낸다.

10여분 뒤 2백여명의 학생들이 우루루 원호를 이루며 "대인없는 학부제를 거부한다" "약력업주 물리치고 학생복지 이룩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여 명의 대표자들은 곧바로 사무처장실로 들어가 자보 및 '투쟁'이라는 현서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들고 집거봉선을 들어갔다.

20여분간 교직원들과의 입씨름으로 밀고 당기는 힘겨운 투쟁. 그시간 유효권 중정에 남은 학생들은 3시간을 기다린 끝에 고작 "해산"이라는 말 한마디에 의기소침해하며 힘없이 발걸음을 돌린다. 이때쯤 교양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과 교차되는 순간, 함께 공유할 시간임에도 이들이 서로 남인양 밀게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정희정 기자

제6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 유보

경찰 원천봉쇄가 초래한 결과

정부 강경한 입장... 학생운동 와해 조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일시외장=순준혁 영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기로 한 제 6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를 경찰의 원천봉쇄로 잠정 유보했다.

순준혁 일시외장은 10일 영남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기 한총련은 지금의 근거없는 한총련 이적단체규정을 철폐하고 평화적인 대회 보장을 위해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제6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제6기 한총련 대의원 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대구지역 역과 터미널, 행사장인 영남대, 인근 경북대, 계명대 주위에

경찰을 집중 배치해 불심검문을 벌이며 행사자체를 봉쇄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 등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검문검색을 철저히 했다. 영남대학교 측은 행사당일 건물을 폐쇄시키며 폐쇄방향이 멀어지자 보강수업을 하던 일부교수들이 수업중에 학생들을 내보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행사 하루전인 9일 영남대에서는 한총련대의원대회 성사를 위한 대경총련 결의대회를 가졌고 경산시민 한마당을 개최했다. 약 1백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대경총련 각 대학 대표자들이 한총련 대의원대회 사수를 위한 결의의 말이 있었고 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해 나갔다.

한총련은 지난 6일부터 '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평화적인 한총련 대의원 대회를

보장' 하라고 지속적인 성명을 밝혔으며 계획대로 한총련 대의원을 지난 10일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전국연합, 범민련 등 재야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해 한총련 대의원 대회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행사일인 10일 대의원 대회 성사를 위해 모인 전국 8백여명의 학생은 경북대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가지며 밤샘농성을 벌였다. 또한 영남대에 남아있는 3백명의 학생들도 요구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부경총련, 충청총련, 경인총련 등 8백명이 이날 오후 6시 동대구역에 하차해 경북대로 뛰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45명의 연행자가 발생했고, 또한, 경찰은 대구시내 역, 터미널에서 학생 1백50명을 연행해 3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한양대에서 제5기 한총련 출범식을 원천봉쇄한 경찰들의 모습.

이어 한총련 국민회의 농성단은 국민회의 대구당사에 '감대중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과 한총련 성명서를 가지고 방문하려 했지만 경찰들의 저지로 들어가지 못했다.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농성단은 전원 연행되었다.

한편, 서총련 12명의 학생들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철폐와 평화적 대의원대회 개최보장을 위한 명동성당 단식농성단'을

꾸러 한총련 대의원 대회 투쟁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한총련은 평화적 개최를 보장 받기 위해 영남대 총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민회의 총과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인택 기자

전국연합 상임의장 간담회

통일운동, 전선확대·재편 확인한 자리

4·19 전진대회 통해 운동세력의 주춧돌 다짐



지난 9일 종로성당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이창복 이하 전국연합) 주최로 '민족민주운동의 진로에 관한 전국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간담회'가 열렸다.

이창복 상임의장의 기조연설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 이번 간담회는 전국연합의 통일운동과 전선 확대·재편의 현황과 과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기조연설을 요약해 보면, '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면서 민족민주운동이 새로운 정세에 맞는 활동을 요구하

는 시기이다.

통일정책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72년 이후 일관된 통일정책 기조를 지녀왔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의 강력한 외세, 특히 미국의 대북방위 정책의 범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어려움으로 남았다. 민간통일운동은 남북간의 대화를 확산시키고 민족의 의사대로 통일을 실현해 갈 필요가 있다. 한편 정치·경제적으로 대미의존적외교정책을 펼치는 게 사실이다.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어서 민족자주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따라서 전국연합은 남북합

의서 국회비준과 남북 농업협력 실현, 주한미군 방위비 지원 중단등을 올해 실험목표로 하고 평화군축의 내용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변화에서 실시하는 첫걸음이다. 민족민주진영은 사상적 혼란함과 전방의 불일치로 자체의 일치성과 통일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지역운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체의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장기적인 민족민주운동을 정치외교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민족적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전선개편을 준비해 나가며 우선적으로 전국연합의 이원된 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전국연합의 조직력을 복원해 나가면서 전선재편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특히 노동운동의 중심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모든 민주조직이 현재 전선체인 전국연합에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한 전선체를 건설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민주개혁의 과제와 민족의 생존권을 위한 공동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연설을 마쳤다.

이어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통일운동에 있어서 범민련과의 연계와 앞으로 활동방향은

=조직적으로 범민련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통일운동을 운운하기 전에 미군철수, 연방제통일안 등 정치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였고 3차 연대의 남북기본합의서 민족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든 민족민주운동세력들과 함께할 것이다. 여러가지 통일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범민련과 민족민주세력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며 통일운동의 원칙을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

-한총련 혁신이라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학생운동에 대한 생각.

=96년 연대항쟁과 97년 한총련 출범식을 거치며 한총련 통일운동은 균형을 잃었다. 대중적 지지도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학생운동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겸손한 자세로 전국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학생운동의 방법에 있어서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운동에 있어 국제적 연대 계획은.

=국내에 운동이 국한되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9월달쯤 아시아 민중 연대회의의 공동 심포지엄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운동이 활발해질때 국제적 유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19 전진대회의 의의는.

=전진대회는 전국연합 출범식을 겸하는 자리이다. 전진대회를 토대로 전선확대, 전선재편을 이룰 것이며 노동자, 농민, 학생이 함께하는 힘있는 전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학원생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 오인택 기자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

4·19를 기념하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동국인 등산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제29회 등산대회

경주캠퍼스 제18회 등산대회

- 1. 일 시 : 98. 4. 17(금), 09:00-17:00
- 2. 장 소 : 북한산(4·19탑→대동문→북한산정→위문→하루재→도선사)
-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
- 4. 행사내용 : 4·19기념식, 등산대회, 장기자랑 및 시상식
- 5. 구 성
 - 가. 4인1조:학(부)과, 동아리, 대학원, 동문 등 자유롭게 구성
 - 나. 학과당: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수 2인 이상 참가
- 6. 시 상
 - 가. 최우수상, 우수상, 자연보호상, 장기자랑(참가자)
 - 나. 학과상
 - 1)상금:금상(1백만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 2)참가신청과 심사(참가율 우선)는 별도로 한다.
 - 3)다수의 학과가 심사대상일 경우는 대회 운영상 대상과 시상상을 조정함.
- 7. 접수기간 : 98. 4. 6(월)-4. 16(목)
- 8. 접 수 처 : 학생과(본관 3층, 교내전화:3047-8), 산악부(도서관 지하)
 -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로 문의.

- 1. 일 시 : 98. 4. 24(금), 08:30-18:00
- 2. 장 소 : 경주 남산일원(통일전→칠불암→연못→용장계곡(중식)→정성→상선암→삼릉)
- 3. 대 상 : 교직원부, 동문부, 재학생부, 동아리부, 금강생활관부
- 4. 내 용 : 개회식, 중식, 사릉(도착지)도착, 폐회
- 5. 팀 구 성 : 팀당 4명(팀장 1명, 팀원 3명)
- 6. 시 상
 - 가. 최우수상 1팀, 용맹정진상 3팀, 코끼리상 3팀, 연꽃상 3팀, 자연보호상 3팀, 특별상
 - 나. 특별상은 각 부에서 인원동원이 가장 많은 학과(부), 행정부서(3처), 동문, 동아리, 기숙사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 다. 장기자랑시상은 별도로 심사하여 시상한다.
- 7. 접수기간 : 1998. 4. 15(수)- 4. 21(화)
- 8. 접 수 처 : 백상탑 앞 산악부 특설캠프(우천시 학생회관 로비)
 - *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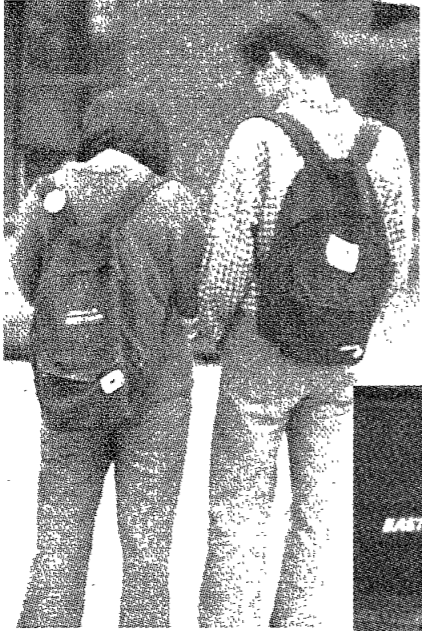
학 생 처 장

'태극기 오·남용, 성조기 유행과 다를바 없다' 상술로 왜곡된 애국심, 비판의식으로 바로잡아야



98 동학의 봄... 동국대원 일명 나체밭에서 한의학과 본과 3학년 학생 두명이 한가롭게 바둑을 두고있다.

"태극기 배지 있어요"
태극기유행이 초·중·고교 뿐만 아닌 대학가에서도 일고 있다. 작년 이맘때 성조기무늬의 옷과 가방, 신발, 배지 등이 나이와 지역에 관계없이 유행했던 것처럼 태극기무늬 상품들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글쎄요, 한 두달정도 되지 않았나요? '애국심'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시작됐는데..."
컴퓨터 공학과 한 학생은 태극기 배지를 가방에 달고 다니기 시작한 시기와 달고다니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답했다.

사실 태극기 무늬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지난해 말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주)화승 르까프에서 태극기를 이용한 신문광고를 내보냈고 이와 함께 태극기 배지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이후 여타 업체에서도 태극기를 상품디자인에 활용하거나, 이에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판매전략을 보였다.

르까프의 광고기획 담당자인 조성씨는 "태극기를 디자인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가 일어 상품화되지는 못했지만 경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애국심을 강조한

있다. 행정자치부 의정에서 국가상징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오세진씨는 "태극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서 좋다"며 "태극기가 국민들 속에 살아 숨쉬는 것 같다"고 현재 태극기 디자인 활용에 대한 의견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애국심' 유행이 시작된 지 3달여가 지난 현재 과연 우리는 태극기에 대해 이토록 친근감과 애국심을 갖고 대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태극기유행의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유행어인가? IMF 경제난 여파로 애국심이 강조되긴 한하지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식물자원학과 4학년 김희준군은 외국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모 회사에서 태극기를 사은품으로 주는 것을 보았으며 태극기 상품유행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태극기 환경에 'I love Korea' 라는 영문자를 써놓는 지금의 상태를 '애국심'이라고 이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의 의도가 어땠던 상술에 의해 국가가 오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제 태극기는 국가계약대에서 우리의 매하는 모 회사에서 태극기를 사은품으로 주는 것을 보았으며 태극기 상품유행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태극기 환경에 'I love Korea' 라는 영문자를 써놓는 지금의 상태를 '애국심'이라고 이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의 의도가 어땠던 상술에 의해 국가가 오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제 태극기는 국가계약대에서 우리의

국산품 애용'이라는 취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시 나와 상품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태극기의 사용화를 위해 지난 96년 12월 27일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15182호를 발효)했던 의정과정에서는 현재의 태극기디자인 이용 실태를 매우 고무적인 눈길로 바라보고

기방으로 우리의 티셔츠로 내려왔다. 그러는 사이 기업가들의 '상술'도 한 몫을 담당했는지(?)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식이다. 개개인이 태극기를 상품으로 소비할 때 태극기는 하나의 유행상품으로 전락할 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 배지를 깨끗이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이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되는 것이다. 태극기를 선호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애국심이 살아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할 때이다. 최진 기자

'태극기'로 배지?

"국기는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통령령 제15182호 제22조2항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있다. 이 항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

11361호로 제정된 이후 4번째 개정된 지난 96년 12월 27일 대통령령 제15182호에서 신설된 항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에 계양시각과 강하시각을 규정하던 것을 24시간, 즉 하루종일 국기제양을 가능하도록 하는 항(13조)과 국기크기를 몇 개로 한정하던 것을 길이와 너비의 비례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항(제17조)을 신설했으며 계양위치도 기존의 중앙이나 왼

쪽으로 계양위치를 한정하던 것을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제22조)했다. 한편 총무처장관이 국기에 사용되는 진홍색과 아청색 등 표준색을 정해 고시함(제7조2항)으로써 국기색을 통일시켰다.

이와 같은 개정·신설항들은 '태극기를 생활 속에서 접함으로써 그 모양을 바로 알고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는 취지에서 실행했다. 최진 기자

동성애잡지 '버디' 편집실을 찾다

"이 땅에서 당당히 살기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끊이지 않는 격려전화... 동성애자 위한 버팀목 될 터



국내최초로 동성애 전문잡지 '버디(BUDDY)'가 지난 2월 20일에 창간됐다. 주위에서 우려했던 바와 달리 3월 창간호에 이어 4월호를 무사히(?) 만들어내고 5월호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버디의 편집실을 찾아갔다.

신당동에 위치한 버디의 사무실에서 한 채운 편집장과 편집인 윤미경씨, 광고영업을 담당하는 이세영씨가 지난밤의 밤샘작업에 까칠한 얼굴을 하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중 자신이 가장 한가하다며(?) 인터뷰에 응해준 이세영씨에게 한시간 동안 버디에 대해 들어보았다.

-버디의 창간 배경 및 취지는?

=이제껏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들의 울바르지 못한 시선에 의해 평가되어 왔고, 마치 동성애자는 돌연변이처럼 취급받아 왔다.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서 당당한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발을 버디에서 내딛고자 한다.

-버디의 내용은?

=쉬운 동성애 얘기를 하고 싶었다. 동성애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동성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담았다.

-3·4월호의 반응은?

=대단히 성공적이다. 재정상태가 어려워 편집기술이나 종이질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얘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 응해주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격려전화를 하는 등 반응은 좋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아직까지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자)들의 공격(?)은 없다.

-현재 재정상태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영세하다. 처음부터 거대자본을 갖고 출발한 것도 아니고 상업성을 추구한 것도 아닌지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 IMF한파 때문에 기업의 광고를 받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여러 신문이나 TV에 우리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이성애자의 편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론의 홍보효과로 인해 잡지가 많이 팔리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는 일은 슬

픈 일이다.

-현재 유통방식은?

=각 대학가 서점 및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4월호부터 지방대 도시의 대형서점에서도 버디를 사볼 수 있다. (본교의 경우 녹두서점에서 판매중) 버디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이성애자들 동성애자들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버디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정보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많은 동성애자들의 버팀목이 되고 싶다. 김미경 기자

달하나 천강에

고쳐야할 것들



김필수
인문과학대 철학과 교수

우리는 농촌사회가 너무 빨리 거대 도시사회로 바뀐 탓인지 한 사람 한사람이 지켜야 할 공중도덕 및 질서외의식이 너무 뒤떨어져 있음을 자주 느낀다.

그 중 하나 침벨은 문화는 점차 국민성화 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대도시에서는 서민 지역의 사람들이 더 심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소위 바쁘다는 소리를 듣는 자영업자나 화이트칼라에 이르기까지 일반화 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래침 함부로 뱉는 사람은 한국사람 아니면 중국사람이라는 데 대해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우겼으나 여행을 자주다니다 보니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님을 알았다. 여기에 동반자 사람이 포함된다의 말이다.

이제는 무의식화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뱉는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자기표현 방법으로 이것은 너무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의식하지도 못한다. 침은 도가(道家)의 연단법(鍊丹法)에서도 생명연장의 가장 고귀한 요소로 친다. 침

을 옥예(玉露)라하여 이것을 생산하여 다시 삼키는 방법은 '금장옥예법(金藏玉露法)'이라 하며 무병장수의 한 방법으로 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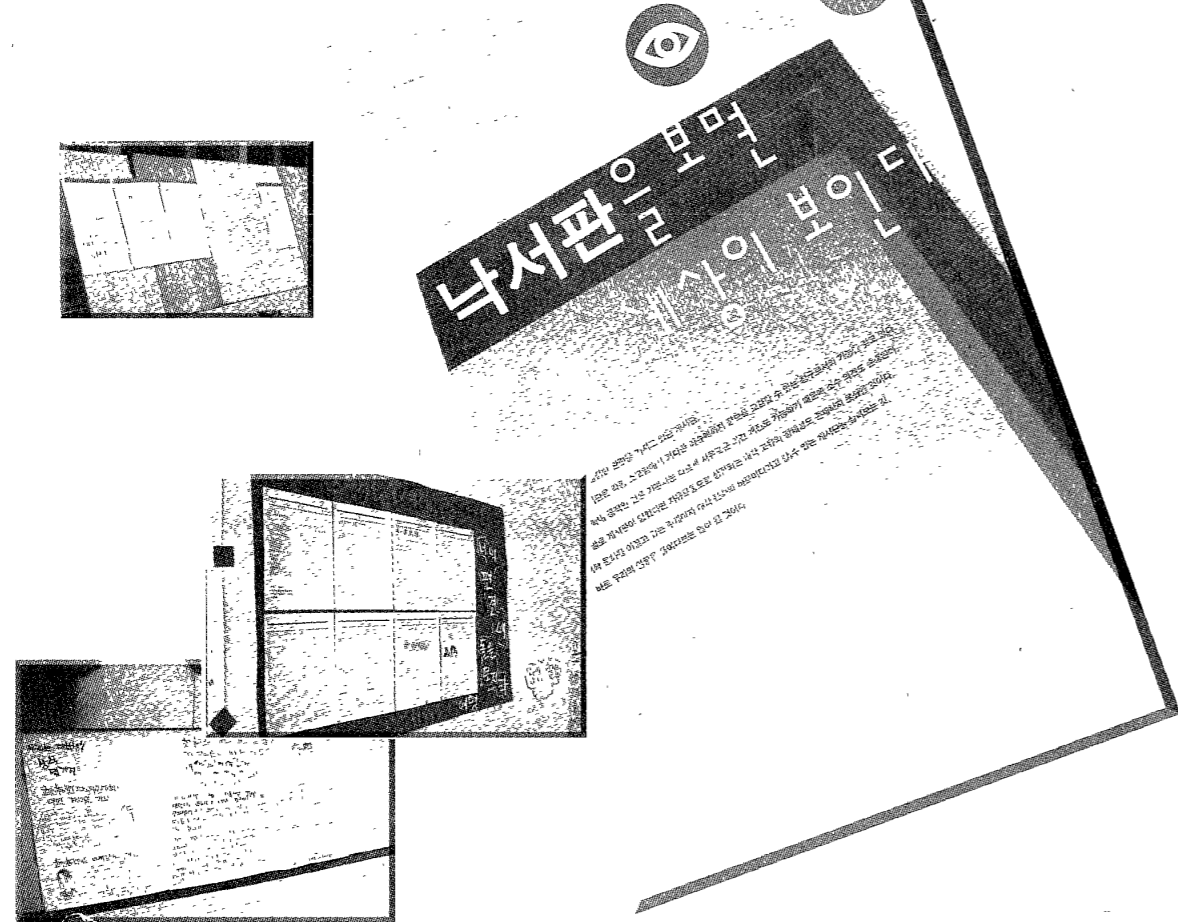
고쳐야 할 또 하나를 본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벤치의 틈 사이 잘보이지 않는 바위물·공원 나무의 작은 틈사이에 꼬깃꼬깃 담배꽂이를 꽂아 버섯, 담배꽂이를 하수구 맨홀에 다 넣는 버섯, 음료수 먹고 캔을 쥘때 난간이나 복도에 놓고 가는버섯들이다. 이런 버섯들로 생산된 쓰레기들이 청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가장 저음을 내어 가래침을 뱉었다고 위신이 결코 올라가지 않고 이것이 습관화되면 평생 고치기 못한다. 젊은 시절에 이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한다. 일년만 침을 뱉지 않으면 평생토록 지켜 갈 수 있다.

이 습관이 길러지면 가래가 생기지도 않고 감기에 걸려도 가래를 뱉지 않게 된다. 가래가 생기지 않는데 왜 뱉겠나?

이 습관을 버리면 자기 건강에도 좋고 남에게 혐오감도 주지 않는다는 점도 봐도 이 습관은 우리가 꼭 고쳐야할 것이 아닐까 싶다.

동대신문
생활광고

당신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힐끔 힐끔 게시판 앞에서 고개만 돌리다 마는 당신
슬금 슬금 뭔가를 쓰는데 서투려져만 가는 당신

게시판 · 과날적이 · 대자보
그 공간이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쓰고 말하십시오.

당신만이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입니다.

동대신문
생활광고

메아리

전용구장

▲94년 미국 월드컵 지역예선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일본에 패한 한국은 마지막 예선경기에서 북한을 3대0으로 이겼지만, 같은 시각 벌어진 일본과 이라크전에서 일본이 이기면 본선 진출이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1대2로 뒤지던 이라크가 종료직전 자파르의 헤딩골로 일본과 무승부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에게 행운이 돌아온 것이다. 이 행운덕택에 월드컵 본선 4회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뤄냈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했었다. ▲96년 5월 31일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권을 따내면서 한국은 명실상부한 축구강국으로 성장했다.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올해 1월 월드컵 주경기장을 서울 상암구장으로 확정하고 10개 개최도시안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최종보냈다. 하지만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8일 월드컵지원대책회의에서 서울 상암동 전용경기장 건설문제를 전면 백지화시켰고 월드컵 주경기장을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잠정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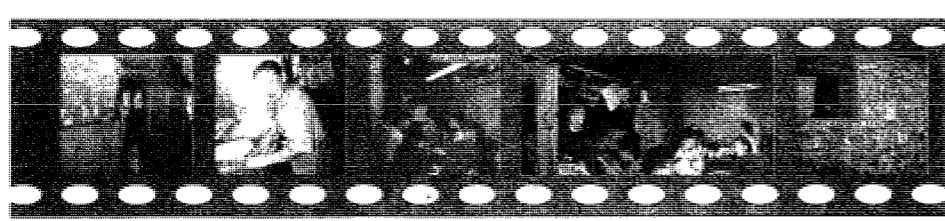
4천5백억원의 건축비가 드는 서울 상암구장보다는 4백억의 추가비용을 들여 인천 문학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으로 개최지가 옮겨진다면 국제방송센터(IBC)와 메인프레스센터(MFC)의 건립과 운영, 접근 교통망, 숙박시설 확충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재해 있다. ▲최근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는 한국의 2002년 월드컵개최 능력에 의문을 가지며 "영국에서 개최 유지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축구연맹 요한네스 부회장은 "개최국중 한국이라고 이상이 생긴다면 즉각 현지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월드컵 개최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해당국간의 계약이다. 이번 결정은 국제무대에서의 신인도 추락과 함께 공동주최국인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월드컵은 전 세계 60억 인구의 축제의 장이며 50억 인구의 약속이다. 물론 IMF시대가 도래하면서 거액의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생산성 유발, 고용증대, 부가가치면에서 얻어지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결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은 아니다. 월드컵개최의 졸속한 준비를 거듭삼아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월드컵 개최안을 이번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21세기 우리의 첫 국가적 행사인 2002년 월드컵이 IMF시대 극복을 세계만방에 알리며 월드컵 개막식 노래와 함께 울려 퍼질길 기대해 본다. 오인택 사회부장

낙서만이 희망이다?

80년대, 우리들의 발언대...90년대, 그들만의 광고판 자발적 의견제시로 대학문화 근간 이뤄야



'간판없는 집' 을 아시나요

해 떨어지기 무섭게 얼굴이 붉어선 사람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물리는 곳. 인사동 '간판없는 집'. 이를 그대로 간판이 없는 술집이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낡은 판자집에 청소는 언제 했는지 담배 풍초와 먼지가 겹겹이 쌓여 있는 바닥과, 벽면 전체에 삐죽하게 들어찬 낙서들을 보면 '과연 술 맛이 날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 '간판없는 집'의 1백50여 명 손님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오히려 자리가 없어 밖에서 줄을 기다리는 형편이니 대체 이 낡고 지저분한 '간판없는 집'의 인기비결은 무엇일까. "이곳에 오면 쫓겨나는 것 같아. 옛날 생각도 나고, 요즘 젊은이들과 같이 술을 마실 수 있어서 좋지" 술이 얼큰하게 취한 중년 신사의 대답이다. 80년대 대학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시대를 한탄하던 그들이 이제는 80대가 되어 90년대 대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간판없는 집'이 바로 그들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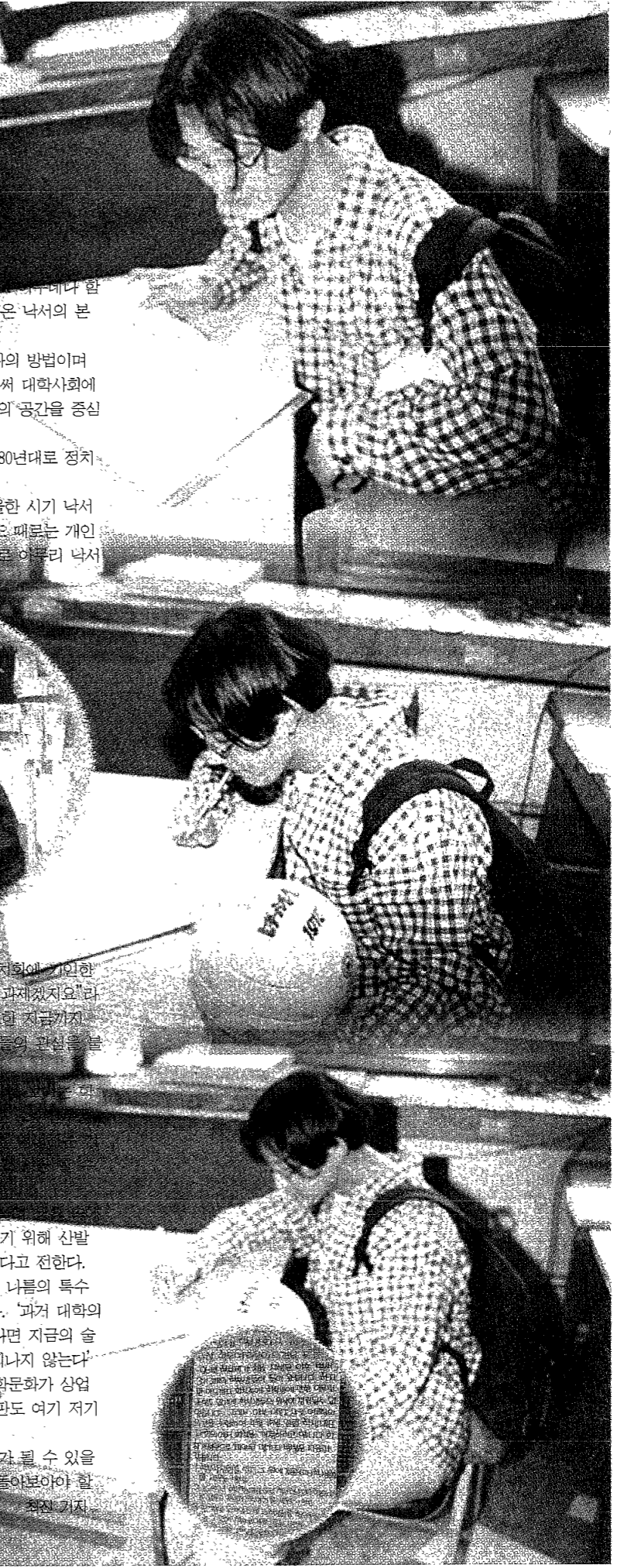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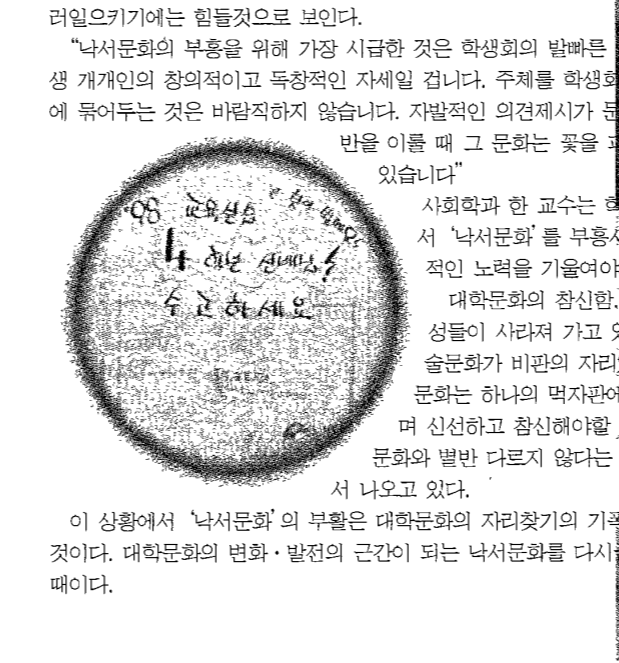
어주는 끈인 셈이다. 인터뷰에 응한 중년신사의 나이쯤 됐을 법한 38년의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간판없는 집'의 특징은 자리에 앉자마자 손님들이 미처 주문하기도 전에 막걸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가장 인기 있는 안주는 고갈비(고등어)이고, 모두 5종류의 안주가 있다고 하는데 메뉴판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처음에는 메뉴판을 붙여 놓았는데 벽이 온통 낙서판이 되다 보니 메뉴판을 붙여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라고 7~8년동안 '간판없는 집'에서 일했다는 주인 아주머니의 아들이 말한다. 하지만 워낙 단골손님들이 많으니라 손님들은 메뉴판을 보지 않고도 안주를 주문한다. 메뉴판을 없앤 낙서는 시대변화에 맞춰 그 주된 내용도 변했다. 요즘에는 '누구누구 왔었다' '누구누구를 좋아한다' 등의 짧고 가벼운 낙서가 많은데, 80년대에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긴 문장이나 시로 표현한 낙서가 많았다는 점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낙서의 내용까지도 변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간판없는 집'을 찾는 사람들의 짧은 마음일 것이다. 김미경 기자

다른 대학은?

연세대학교 연대의 경우 특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과대는 분과대이다. ...문과대는 지난해부터 화정실에 '문우인 대화방'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1주일 단위로 두 개의 낙서판을 붙여 놓고 수거하고 있다. 하나는 '문과대 학생회에서 알립니다'라는 이름으로 금주의 학생회 일정 및 지난 일주일간의 평가를 적어놓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내의 문제를 주제로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백지소자보'. 주제는 '술문화' 및 '학부제', '수강신청' 등이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성대 화정실에서는 불일(?)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각 학생회별로 화정실에 낙서판 및 게시판을 붙여놓는데 특히 동아리 연합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화정실 안쪽 문에 스티로폼 메모판을 붙여 놓고 사담을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행소문학회'라는 동아리에서는 화정실 안에 자사지를 붙여 놓기도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이대에서 할 말 많은 사람들은 빨리 화정실에 가야 한다. 이대는 총학생회에서 화정실에 대자보를 붙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달에 두 번 정도 B5용지 함께 펜을 붙여 놓아 학생회 사담을 알리기도 하며 학내외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 하루에 한번씩 수거하고 있다. 김미경 기자

'낙서'란 책을 베끼 때 잘못해서 글자를 빠뜨리고 쓰거나 장난감으로 낙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낙서 문화가 있다. 그러나 대학 사회에서 낙서란 의견을 토론했고 공론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며 누구나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나름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이로써 대학사회에서 일찍이 게시판, 화정실, 파나 단과대 학생회에 비추면 날적이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낙서문화'가 형성 발전해왔다. '낙서문화의 전성기는 아무래도 군사정권·독재정권이 들어섰던 80년대로 정치적 발언들이 대다수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문과 석사과정 2학기에 재학중인 전대문씨는 유신과 5공의 일흔한 시기 낙서가 하나의 '언어(言語)'의 역할을 했다고 전한다. 정치적 발언이었던 때와는 개인 및 소수의 의견을 담아내는 발언대의 역할을 했으며 나름의 성취감도 이루려 낙서라 해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서문화도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90년대 이후 사회·정치·문화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변해갔다. 시국 관련 대자보는 양적으로 적어졌고,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부류도 생겨나게 되었다. 80년대 '의식의 낙서'들이 이 메우던 학내공간에는 넘쳐나는 상업광고와 알림성 대자보들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낙서들이 곳곳에 지적봉하게 널리 있어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까지 분분해 낙서문화의 존립기반에 대해 고민을 던져주기도 한다. 이에 학생회 한 간부는 "낙서문화의 퇴보의 가장 큰 원인은 탈정치화 때문인 학생들의 무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지요"라며 설문조사를 통한 대안을 잡아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 생활문화를 소홀히한 정치일변도의 학생회모습을 비판해 왔던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낙서문화의 부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학생회의 발빠른 대응과 학생회 개개인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자세일 겁니다. 주체를 학생회에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의견제시가 문화의 반을 이룰 때 그 문화는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사회학과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낙서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신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한다. 대학문화의 참신함, 곧 나름의 특수성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과거 대학의 슬로문화 비판의 자리였다면 지금의 술 문화는 하나의 먹자판에 지나지 않는다'며 신선하고 참신해야 할 대학문화가 상업문화와 발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낙서문화'의 부활은 대학문화의 자리찾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문화의 변화·발전의 근간이 되는 낙서문화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김미경 기자



영상매체비평



영화 비온드 시일렌스는 가슴 따뜻한 하모니를 그려낸다.

요즘은 살맛이 안난다. 어딜가나 IMF가 어찌고 저찌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응당한 댓가라면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린 것을 나더러 어찌라고. '석양이 질때 어떤 소리가 나지?' 사랑할 때는? 비보같은 질문이다. 단, 소리가 넘쳐흐르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다. 비온드 시일렌스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소리의 소중함과 사랑에 대한 영화다. 청각장애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라라는 정상인이긴 하지만 세상과 부모의 메신저 역할 때문에 세상사람들과는 다른 고통된 삶을 살아간다. 바로, 라라의 일상 역시 침묵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로부터 클라리넷을 선물받으면서 라라는 음악이라는 새로운 소리의 세계에 빠져들고 부모는 자신들과는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것에 당혹

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많은 갈등 뒤, 결국 청각장애인인 아버지는 딸이 연주하는 클라리넷의 '소리'라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라라 역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보다는 소리없는 세상에서 살아온 아버지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각자의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의 삶은 어떤 소설보다 치열하고 격정적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화에서 바로 삶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진실된 자세'를 배우는 것이다. 수화문씨 표현되는 대화가 목소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보다 인간적으로 다가오고 '라라와 그의 연인 토피 열정적인 수화부르는 클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가 흐르는 장면은 할리우드 영화가 침범할 수 없는 영화의 묘미를 제공해 준다. 흔히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는 무겁고 재미없는 영화로 비쳐지는 영화계의 풍토 속에서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엮어내는 '비온드 시일렌스'는 감각적인 스토리, 스펀타넨한 영상대신에 아름다운 클라리넷 선율 속에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인위적인 스토리 속에서 짜맞춰진 감동이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감동일이다. 6월원의 극장표도 민민치 않게 생각되는 요즘, 지금 우리들의 타인에 대한 표현방식은 어떠한가? 사랑도 슬픔도 진실도 그 소리가 크고 요란하다해서 그 깊이가 크고 깊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이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소리없이 전해지는 게 우리 주위엔 너무 많지 않은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그 진부하고도 지극지극해마지 않는 '사랑'이 바로 이세상과 사람을 아름답게 조율시켜 주는 것이다. 서 화규 아트영화 카피라이터

고 재미없는 영화로 비쳐지는 영화계의 풍토 속에서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엮어내는 '비온드 시일렌스'는 감각적인 스토리, 스펀타넨한 영상대신에 아름다운 클라리넷 선율 속에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인위적인 스토리 속에서 짜맞춰진 감동이 아니라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감동일이다. 6월원의 극장표도 민민치 않게 생각되는 요즘, 지금 우리들의 타인에 대한 표현방식은 어떠한가? 사랑도 슬픔도 진실도 그 소리가 크고 요란하다해서 그 깊이가 크고 깊은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이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소리없이 전해지는 게 우리 주위엔 너무 많지 않은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 그 진부하고도 지극지극해마지 않는 '사랑'이 바로 이세상과 사람을 아름답게 조율시켜 주는 것이다. 서 화규 아트영화 카피라이터



감독·시나리오 카를리네 링크

알림 제1245호 4월 6일자 신문 영상매체비평기사중 편집상의 실수로 '참조해야 할 것이다'가 누락되었습니다. 필자는 협성대 광고홍보학 감사 마정미씨입니다.